

〈소현성록〉의 보여주기 서술과 그 의미*

조혜란**

<차례>

1. 서론
2. 〈소현성록〉 보여주기 서술의 양상과 특징
3. 〈소현성록〉 보여주기 서술을 통해 드러난 서술 지향
4. 결론

〈국문초록〉

본고는 서술론적인 방법론에 의거하여 삼대륙계 국문장편소설의 작품 세계 및 서술의 지향을 살펴보는 작업의 일환으로 시도된 것이다. 그 첫 작업으로 〈소현성록〉을 대상으로 하여 작품 중 묘사, 대화, 표문이나 편지글 등의 삽입문 등 보여주기 서술 방식에 의해 서술된 부분을 대상으로 그 양상과 의미를 고찰하였다. 보여주기 방식의 서술은 서술되는 내용의 구체성을 확보하고, 현장성을 살려주는 서술로, 독자들이 읽으면서 그 내용을 함께 경험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제공한다. 그러므로 상황을 재현하는 보여주기 방식의 서술은 서술자가 제시하는 방식으로 서술하는 것보다 독자들의 능동성, 능동적 독서 과정을 유도할 수 있다.

〈소현성록〉에 나타난 보여주기 서술의 양상을 살핀 결과, 여타의 국문장편소설에서 나타나는 바와 유사하게 이 작품에도 유교 경전 및 중국 역사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지식이 인용되어 있는데, 이는 작품에서 구사한 전고 정도는 즐기면서 이해할 수 있는 비슷한 지적 배경을 가진 이들을 독자로 상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서술자가 교양이 아니라고 여겨지는 대목은 차마 끝까지 표현하

* 이 논문은 2007년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7-358-A00079).

**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연구교수

지는 않는 서술 태도를 보여준다. 이는 못 생긴 여성에 대한 묘사 방식 및 성적 욕망과 관련된 사건을 전개하는 방식 등을 통해서 추정 가능하였다. 이 작품이 묘사, 삽입문, 대화의 재현 등 보여주기 서술을 강화한 것은 궁극적으로 여성 인물들의 능력을 부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한 셈이 되었다. 왜냐하면 사회적 제약이 많은 상층 여성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한 채 행위를 통해 자신들의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는 원천적으로 빈약하기 때문이다. 행위 중심의 서사가 아닌 서술이 강화되면서 <소현성록>은 당대 현실에서 존재 가능한, 그래서 독자들 역시 실천 가능한 여성 역할 모델을 형상화해 낼 수 있었다. 이는 당대 상층 여성들의 삶이 주로 집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공간적 제약과도 자연스럽게 맞물리는 선택이다. <소현성록>의 보여주기 서술을 고찰한 결과, 이 작품은 단지 유교적 당위를 따르는 수준이 아니라 서술자의 지향이 상층 교양의 구성을 향해 있었던 데서 비롯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어휘의 수준에서부터 서술자의 지향에 이르기까지 <소현성록>은 유교적 교양미를 추구한 작품이라 할 수 있겠다.

주제어 소현성록, 보여주기 서술, 서술론, 묘사, 대화, 삽입문, 교양, 글쓰기, 여성 인물, 외양, 역할 모델

1. 서론

국문장편소설은 연구사의 초기부터 그 방대한 서사 분량으로 인해 장편화 방식 자체가 연구 주제의 하나로 중요하게 다루어졌고¹⁾, 뒤이어 작품의 구성 원리, 문체적 특성, 연작 방식 등 양식적 특징 및 서사문법에 대한 연구가 제시되었으며, 또 여성들이 이들 작품의 지속적인 향유층일 수 있었던 가능성을 ‘소설 속의 이념이 아니라 소설 자체의 서사적 흥미’에서 찾는 연구도 보고되어 있다²⁾. <완월회맹연>의 글쓰기 방식을 분석하거나 혹은

1) 김홍균, 「복수주인공 고전장편소설의 창작방법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 논문, 1990.

작품의 ‘여성적 면모’를 다루면서 섬세한 서술, 심리 묘사 등의 서술 방식을 다룬 논의³⁾ 역시 국문장편소설의 서사적 흥미에 대한 탐구에 속한다.

국문장편소설이 누대기 구조를 차용하거나 혹은 상대적으로 여러 가문을 등장시켜 작품의 장편화를 도모한다는 지적은 타당하다. 그러나 이 같은 접근은 작품군의 공통적 특징은 잘 드러내 주는 반면 개별 작품의 서사적 특징을 드러내는 데에는 적합하지 않다. 국문장편소설은 그 분량이 매우 방대하여 서사 개요를 단위담 혹은 사건담의 층위로 정리한다 하여도 다른 작품과 유사한 이야기인 것처럼 보일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국문장편소설의 서사적 특징, 그 서사적 결(texture)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미시적인 층위의 분석이 필요하다. 비슷한 성격의 단위담들이 동원된다 하여도 그 세부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방식은 작품마다 다르며, 바로 이같이 서술이 차별화되는 지점들이야말로 국문장편소설의 독자들이 그 작품들을 읽게 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국문장편소설 연구가 작품의 주제나 이념에 대한 연구만이 아니라 이렇듯 창작 방식 및 서술 방식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갖는 것 역시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결과라 하겠다⁴⁾. 그러므로 본고는 이런 문제의식 하에 국문장편소설을 서술론적 방법으로 접근하여 서술 방식을 분석하고자 한다.

-
- 2) 양식적 특징 및 서사문법에 대한 연구로는 송성욱, 「대하소설의 양식적 특징」, 『한국대하소설의 미학』, 월인, 2002, pp.37-117; _____, 「대하소설의 서사문법」, 『조선시대 대하소설의 서사문법과 창작의식』, 태학사, 2003, pp.21-205; 서사적 흥미에 대해서는 _____, 「17세기 소설사의 한 국면」, 『한국고전연구』 8, 한국고전연구학회, 2002, p.261.
 - 3) 정창권, 「조선후기 장편 여성소설 연구-〈완월회맹연〉을 중심으로」,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1999; 정병설, 「조선후기 여성소설과 남성소설의 비교 연구」, 『국어교육』 107, 한국국어교육연구회, 2002, p.418.
 - 4) 앞에서도 언급했듯 서사 분석에 비중이 놓이는 창작 방식이나 장편화 방식에 대한 연구는 작품의 보편적 구조를 분석해서 보여주기에는 유용한 반면 작품의 미시적인 차이까지 드러내기에는 미흡하다.

작품의 서술을 분석하는 서술론적 방법론은 텍스트의 특이성과 개별성에 주목하기 때문이다⁵⁾. 본고는 우선 국문장편소설의 서술 방식 중 ‘보여주기(showing)’에 해당하는 서술부터 고찰하고자 하는데, 이는 조선시대 소설 중 보여주기에 해당하는 서술 방식이 강화되기 시작하는 하위 장르가 바로 국문장편소설이기 때문이다⁶⁾. 국문장편소설의 보여주기 서술은 묘사, 삽입문, 대화의 재현적 서술을 포괄한다.

그런데 서술론적 접근의 목표가 단지 작품의 어휘적 특징이나 서술 방식 자체에 대한 고찰에서 그치는 것은 아니다. 어떤 단위로 서사를 분절해서 서술 방식을 본다 해도 결국 개개의 요소들은 작품 전체의 지향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수렴될 것이다. 왜냐하면 보여주기 방식을 통해 서술해도 그 서술은 서술자에 의해 선택적으로 전달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서술자의 선택과 배열은 어휘 구사나 사건을 다루는 방식 등을 통해 추적 가능하다⁷⁾. 서술론적 분석의 궁극적 목표는 서술자의 선택, 서술의 지향 나아가 내포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 분석에까지 이르는 것이며, 서술론적 분석을 통해 서술자의 지향 및 작품이 전달하고자 하는 이

5) 서술론에 대한 이론적 고찰은 정혜경, 『한국현대소설의 서사와 서술』, 월인, 2005, pp.1-30.

6) <소현성록>은 17세기 작품으로 비교적 이른 시기의 작품이며, 동 시기의 다른 고소설 작품에 비해 전체 서사 분량에서 대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두드러지는 작품이다. 정창권, 정길수 등이 대화에 대해 주목하는 것 역시 국문장편소설에서 눈에 띄는 서술 방식이 대화이기 때문이며, 대화의 재현은 바로 보여주기 서술 방식의 대표적인 예가 된다. 정창권, 「<소현성록>의 여성주의적 성격과 그 의의」, 『고소설연구』 4, 한국고소설학회, 1998; 정길수, 『한국고전장편소설의 형성 과정』, 돌베개, 2005.

7) 서술자와 작품의 통일성 및 지향에 대해서는 웨인 부스, 최상규 역, 『소설의 수사학』, 예림기획, 1999, pp.287-296 참고. 즈네프는 보여주기 서술조차도 서술자의 목소리(voice)를 전해 독자에게 전달되는 것이므로 결국은 말하기의 한 방식일 따름이라고 하였다. 이는 보여주기 서술 역시 서술자의 선택과 배제에 의해 서술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서는 정혜경(2005), pp.25-26.

넘까지도 고찰하는 것이 본고가 선택한 방법론의 궁극적 목표이다.

텍스트의 특이성과 개별성에 주목하는 서술론적 분석을 통해 국문장편 소설의 서술 양상에 대해 고찰하려면 해당 작품들에 대한 귀납적인 연구가 축적되어야 할 것이다. 본고는 그 첫 작업으로 국문장편소설의 효시라 추정되는 <소현성록>을 선택하였다. 작품의 창작 연대를 추정하고 17세기 종법제 강화 측면에서 거론한 박영희의 연구 이후 <소현성록>에 대한 연구는 상당한 정도로 축적되었고⁸⁾ 작품의 서술 방식도 정창권, 정길수⁹⁾ 등의 논의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어졌으며, 조혜란¹⁰⁾은 본전과 별전의

8) 박영희, 「<소현성록> 연작 연구」, 이화여대 박사논문, 1994; 등장인물에 관한 논의로는 문용식, 「<소현성록>의 인물형상과 갈등의 의미」, 『한국학논집』 31, 한양대 한국학연구소, 1997; 이주영, 「<소현성록> 인물 형상의 변호와 의미-규장각 소장 21권을 중심으로」, 『국어교육』 98,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998; 백순철, 「<소현성록>의 여성들」, 『여성문학연구』, 한국여성문학학회, 1999; 장시광, 「<소씨삼대록>의 여성반동인물연구」, 『온지논총』 9, 2003; 장시광, 「<소현성록> 여성반동인물의 행위 양상과 그 의미」, 『여성문학연구』 11, 2004; 노정은, 「<소현성록>의 인물 형상화 변이 양상」, 고려대 석사학위 논문, 2004; 서경희, 「<소현성록>의 '석파' 연구」, 『한국고전연구』 12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5; 정선희, 「<소현성록> 연작의 남성 인물 고찰」, 『한국고전연구』 12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5; 혼인 형태, 벌열, 서술시각 등 다양한 재재를 다룬 논문으로는 정창권, 「<소현성록>의 여성주의적 성격과 그 의미」, 『고소설연구』 4, 한국고소설학회, 1998; 조광국, 「<소현성록>의 벌열 성향에 관한 고찰」, 『온지논총』 7집, 2001; 양민정, 「<소현성록>에 나타난 여가장의 역할과 사회적 의미」, 『외국문학연구』 12, 한국외대 외국문학연구소, 2002; 박영희, 「<소현성록>에 나타난 공주훈의 사회적 의미」, 『한국고전연구』 12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5; <소현성록> 연작 기획특집 II-김경미, 「주자가례의 정착과 <소현성록>에 나타난 혼례의 양상」; 임치균, 「<소현성록>에 나타난 혼인의 양상과 의미」; 지연숙, 「<소현성록>의 공간 구성과 역사 인식」, 『한국고전연구』 13, 2006; 박일용, 「<소현성록>의 서술시각과 작품에 투영된 이념적 편견」, 『한국고전연구』 14, 2006; 정선희, 「<소현성록>에 드러나는 남편들의 폭력성과 서술시각」,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4,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회, 2007.

9) 정창권(1998), pp.304-309; 정길수(2005), pp.241-249.

10) 조혜란, 「<소현성록> 연작의 서술과 서사적 지향에 대한 연구」, 『한국고전연구』 13, 2006. 조혜란은 본전과 별전의 서술자가 다를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는데, 비슷한 관심의 연구로는 <소현성록> 본전과 별전의 작가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다. 정병설,

서술 방식 차이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고는 우선 <소현성록>의 보여주기 서술에 해당하는 묘사, 삽입문, 대화의 대표적인 예문들을 제시하면서 분석하고자 한다. 이때 인용되는 예문은 국문장편소설의 특성상 일정 길이 이상의 예문이 될 것이다. 본고가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이본은 이화여자대학교 소장본 <소현성록>으로, 전권 15권으로 되어 있다.

2. <소현성록> 보여주기 서술의 양상과 특징

2.1. 묘사

<소현성록>에서 묘사는 주로 공간과 인물을 재현해 낼 때 사용된다. 공간의 재현은 주로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사물들을 그려냄으로써, 인물의 재현은 그 인물의 외양인 생김새와 복식을 그려냄으로써 이루어진다. 공간과 인물의 묘사는 펼쳐지는 사건에 입체감을 부여하여 그 이야기가 현실이라는 것을 믿게 하는데 기여하며, 이러한 묘사는 단순히 서사에 필요한 요소들을 도입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조정에까지 개입한다¹¹⁾. <소현성록>의 경우 묘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중요한 인물이 새로 등장하거나 잔치나 놀이를 위해 여성인물들이 모이는 장면의 시작은 외양 묘사부터 서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비해 공간 묘사가 자세한 경우는 작품 전체를 통틀어 몇 군데 정도에 불

「장편대하소설과 가족사 서술의 연관 및 그 의미」, 『고전문학연구』 12집, 1997, p.239; 정길수(2005), pp.178-185 등은 본전과 별전의 차이를 언급하고 각각의 작가가 다를 것이라고 추정한 데 비해, 임치균, 『조선조 대장편소설 연구』, 태학사, 1996, pp.71-78; 박영희(1994), 32 등에서는 본전과 별전의 작가가 같을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11) 묘사가 서사에 현실감을 부여하고 공간의 선택 또한 서사적 목적에서 이루어진다는 논의는 김정숙, 「소설의 언술체계로서 서사와 묘사의 상호작용」, 『불어불문학 연구』 33, 1996, pp.626-634.

과하다. <소현성록>의 묘사 양상과 특징을 고찰하기 위해 우선 빈도수가 높은 인물 묘사의 예를 보고, 연이어 공간 묘사의 예를 살펴기로 한다. 공간 묘사는 외양 묘사에 비해 훨씬 적는데 그 적은 확률 속에서 선택된 공간들에 대해 살펴 예정이다.

①……냥 신인이 금년 화석의 교비를 못하고 폐빅을 드러 구고찌 나아갈시
궤득한 사람이 드토와 관명해매 다만 아롬답기의 버서날 뿐 아니라 극히 흥
하니 제인이 혼 번 바라보매 문득 놀나온디라 늦치 누르고 거으며 크 궤장
적고 허리 퍼지며 엷고 미사 형용이 고이홀 쓴 아니라 늦치 큰 흑이 세히나 좌우
로 드리워시니 가히 무염의 디난 박식이라 신낭이 혼 번 바라보고 녀시 쉼노니
안식이 춘 지 궤고 아니 놀나 리 업스더 홀로 화기 편염혼든 존당과 승상이
라 화부인은 다만 실성뉴테하니 소부인이 꾸지저 왈……화시 텅필의 믹 # 히
탄식 왈 내 일즉 세상의 나므로브터 더런 흥모를 보디 아났느니 이 아히 제
즈 등 단정하니 감히 인등하야 복을 누리과라 헐더니 의외에 우두귀면의 흥
인이 나의 턴금 으즈의 평성 어즈러일 근분이 되니 엷디 혼흠디 아니리잇
고……명도의 넘시 담장으로 쾌옥을 그르고 무식혼 깃옷과 프른 나군을 쓰으고
지분을 물리터 다만 취환을 쉼오고 제부 향년의 버러셔시니 이제 위시 등 칠인이
청삼 흥장으로 봉관을 수기고 옥패를 울니며 금천을 끼고 느는 듯한 엷게와 궤는
허리의 헤힐혼 풍치 표연이 선아 궤고 둘 궤튼 미뵈 삼츄의 웃는 모란 궤트야
표일하고 한아하며 늑연하야 완연히 요디뵈 궤지 곳거늘 넘시는 신부로서 의상
과 거지 하암젓고 외모와 풍치 흥악하니 진실로 구턴선네 운툼의 잇거늘 흑살턴
신이 겨터 시위홈 궤트니라……12)

이 예문은 소부(蘇府)의 온 식구들이 운명¹³⁾의 첫째 부인이 된 임씨를 맞이하는 장면으로, 추모(醜貌)인 신부 임씨와 미모를 갖춘 소부 식구들

12) 권9, pp.87-89.

13) 화씨 소생으로 소현성의 여덟째 아들.

에 대한 외양 묘사가 대조적으로 제시된 장면이다. 그러므로 ①은 미모와 추모에 대한 서술자의 태도를 다 볼 수 있는 예문이기도 하다. <소현성록>에 등장하는 인물 중 특히 소부 집안사람이나 소부로 시집오는 인물들은 모두가 미남미녀들이다¹⁴⁾. 이 장면에서도 ‘푸른 저고리에 붉은 치마에 봉황 무늬를 새긴 관을 쓰고 옥노리개, 금팔찌’ 등을 갖춘 복색으로 등장하는 기존의 소부 식구들은 ‘날아갈 듯한 어깨에 가는 허리가 사뿐한 것이 선녀 같고, 달 같은 미모는 봄에 핀 모란’에 비유된다. 이 작품에서 미모를 표현할 때 이 정도로 묘사하는 것은 소략한 편에 속한다. 이 작품의 얼굴 생김 묘사에 동원되는 어휘는 대개 ‘추파(秋波), 성안(星眼), 도화(桃花), 단순호치(丹脣皓齒)’ 등 동양의 고전에서 주로 사용되던 관습적인 표현들이다. 그러나 미모에 대한 묘사 자체는 매우 적극적이다. 예를 들어, 이 작품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석부인, 형부인 및 소월영과 양부인의 미모에 대한 묘사는 이목구비 하나하나를 매우 자세하게 묘사하며 복식 및 전체적인 분위기 묘사 또한 장황하게 서술되어 있다¹⁵⁾.

14) 인물들의 외양 및 심리 묘사에 대해서는 조혜란(2006) 참고. 이 논문에 의하면 <소현성록>의 서술자는 소부의 여성 인물만이 아니라 남성 인물들까지도 아름답게 묘사하는데 소현성이 그 중 가장 돋보이는 외모를 지닌 것으로 서술된다.

15) “……석시 석파로 더브러 나아오매 설익은 춘 들 굵고 아미는 버들 굵으며 추파명목은 덩” “하야 효성의 경기를 썩엇고 낭협은 도해 조로를 비왓는듯 불근 입은 단사를 취하야 밧그로 고운 거슬 자랑하고 초옥을 갖근 듯흔 흰 니는 안호로 형영하야 고운 물 비양키늘 광윤희 귀 밧티 기롭 방턱을 허비티 아나서 흐르는 빗치 거울 굵고 봉익 초요로 금년을 가브야이 움기매 영” 단 “하야 만신의 수식을 호출하니 홍효상을 쓰으고 금사삼을 붓치며 칠보선 드러 난간의 오르매 신향은 년향을 퇴하고 광치는 춤치 하야 좌우의 도립하니 운예를 빨고 태양을 더흐며 회야의 명조를 비취 굵트여 슈려쇼 췌하미 비길 곳 업는디라 근시인이 눈을 빼와 칭복하고 화녀 낭인이 여취여티하야 반향이 디나매 화시 비르소 곁오디……”. 권2 92면. 이 예문은 소현성의 둘째 부인의 석씨의 외모를 묘사한 부분이다. 피부, 눈썹, 눈, 뺨, 입술, 이, 살쩍 등을 비유를 사용하며 하나하나 공들여 묘사한 후 미인을 묘사할 때 중요하게 다루어지던 걸음걸이에 대한 묘사가 이어지며 그 다음으로 붉은 비단 치마에 금빛 도는 저고리, 칠보로 장식

이에 비해 추모에 대한 묘사는 소략하다. 이 작품에서 유일하게 추모로 거론되는 인물이 임씨인데, 그녀는 ‘낮이 누렁고 검으며 키가 제일 작고 허리는 평퍼짐하며 얼굴이 엷’은 데다 ‘얼굴 좌우에 큰 혹이 세 개나 늘어져 있다’고 하였다. ‘보자마자 다 놀라는(흔 번 바라보매 문득 놀나온디라)’ 외모인데, 미모 묘사 때와는 달리 서술자는 이목구비 하나하나에 대한 묘사를 하지 않은 채 ‘무염¹⁶보다 더한’ 박색이라고 하였으며, 화씨의 발화를 통해서 ‘우두귀면(牛頭鬼面)’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모두 추상적인 언급이다. 다음날 문안 인사를 드리러 나온 임씨는 ‘얼은 화장에, 패옥은 차지 않고 흰 색 깃옷에 푸른 비단 치마’를 입었는데, 여러 아름다운 소부 여성들 사이에 서니 마치 ‘구름 속 선녀들 곁에 혹 달린 천신(天神)이 모시고 서 있는’ 격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꾸미지 않은 태도를 드러내는 앞부분의 복식 묘사는 임씨의 검소함을 짐작하게 하는 표현이기도 하여 오롯이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한 것만은 아니며, 뒷부분의 ‘혹살 천신’ 역시 혹이 불거져 보이는 추모와 더불어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풍기는 엄숙함을 전달하는 표현이기도 하다. <소현성록>의 추모 묘사는 미모 묘사에 비해 적극적이거나 구체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②……서헌 빅화당의 니르니 두 빵 동지 난간 밧긔셔 학을 질드리고 쥬렴을 놓히 거덧는디 향노의 팀향은 니를 토호고 좌우의 만권 경셔를 빠코 거른 고를 빗기 세워시니 몸이 선당의 오른 듯헌디……¹⁷⁾

③……부인 왈 서화 녀흔 방의 이시니 아므거시나 가져가라 드디여 시녀

된 부채 등 복식에 대해 언급한다.

16) 무염(無鹽)은 제나라의 무염읍 출신의 여자인 종리춘(鍾離春)으로, 모습이 추하여 혼기가 지나도 결혼할 수 없었으나, 후에 선왕에게 간언하여 정부인이 된 여성이다. <소현성록>에는 이 장면 외에도 ‘무염’이 인용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주로 ‘추모’를 거론하는 맥락에서 나타난다.

17) 권1, 53면.

로 하여금 열쇠를 주어 선덕누방[을] 여려주니 성이 드러가 보매 수십간 텅
 등의 산호 누리 옥서안과 칩거리를 노코 각식 서책을 차례로 빠하 일흠 모를 거
 시 쉬 업고 정묘하며 괴특하여 수만 권 서책이 다 박은디시 아냐 다 소부인의
 친히 뼈 장척흔거시라 공녀이 현대하고 괴이하며 거룩하며 승상의 장서각도곤
 더하니 기히 녀똥 흑시라 성이 칭찬호물 마디 아니하고 북녁히 디모로 믿든 퀘
 수십이 노혀시니 열고 보니 온갖 네 명쾌 쉬업고 우현 호 퀘에 무수호 그림이다
 부인의 만물을 그려 녀흔거시라 성이 족자 하나홀 빼여내여 가지고 숙모의
 하디고 나와 족즈를 퍼 벽의 걸고보니 칩식 미인리라 이 곳 슈빙 쇼저의 열
 골 그린거시라 성이 내여 온 줄 뉘웃쳐하나 사름이 업는고로 방심하여 집을
 펴고 붓을 드러 숙모의 지조 잇기 어려오물 차탄하더니……18)

②는 소현성의 서재인 백화정에 대한 묘사이고, ③은 소월영의 공간인 선적루에 대한 묘사이다. <소현성록>은 외양 묘사가 빈번한데 비해 공간 묘사는 많지 않아서 ②, ③의 예문 외에 공간이 잘 묘사되어 있는 부분으로는 도입부에 등장하는 소부의 지리적 특징(권1, 4면), 소현성이 들렀던 심양강 가(권3, 96-97면) 묘사 등을 뽑을 수 있는 정도이다. 이 외에 금연 오채화화정(권2), 명현공주의 명현궁(권6), 석부인의 벽운루 증축(권12) 등에서도 공간에 대한 서술이 시도되나 설명적이거나 묘사가 간단한 정도에 그치고 있다. 공간이 등장하는 다른 경우들은 대개 그 공간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지시해 주기 위해 건물의 명칭을 언급하는 정도이다.

등장인물들의 빼어남을 전달하기 위한 방편으로 외양 묘사가 자주 서술되는 것에 비해 공간 묘사는 상대적으로 열세인 가운데 <소현성록>의 서술자는 소월영의 장서각에 해당하는 선적루를 공들여 묘사하고 있다. 이는 소현성의 백화정 묘사와 비교해 보면 확연하다. 소설의 경우, 작품 도입 부분에서 앞으로 서사가 펼쳐질 공간에 대해 묘사하는 일이 빈번하

18) 권12, 101면.

다는 사실을 환기해 보면 권1에서의 자운산 묘사는 예상 가능한 선택이라 하겠다. 그런데 서술자가 다른 공간 묘사는 소략하게 한 데 비해 선적루 묘사는 자세하게 하고 있다는 점은 <소현성록> 공간 묘사의 특징인 셈이다. ‘수십 칸이나 되는 마루, 산호·유리·옥으로 된 책상과 문방구, 차례로 쌓인 각종 필사본 서책들, 대모(玳瑁)로 만든 수십 개의 상자, 무수한 그림’ 등이 열거되는 이 공간은 ‘승상(소현성)의 장서각보다 더’하다. 게다가 이 ‘수만 권에 이르는 서책’은 ‘소씨가 직접 써서 장정한 것’이라며 그녀를 ‘여자 중 학사’로 지칭하고 있다. 주관적 가치인 미/추에 대한 묘사가 비유법을 대거 사용하고 있는 것에 비해 물명(物名)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이 예문은 객관적인 표현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 넓은 공간을 채우는 것은 산호, 유리, 옥, 대모 등 화려한 소재로 된 물건들과 수만 권의 서책, 그림 등이다. 호사스러운 물건들의 열거가 지적인 취향을 반영하는 물건들과 만나면서, 독자들의 상상 속에서 이 공간은 크기에 대한 시각적인 환기 효과 및 고급한 분위기를 아울러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소현성록>의 공간 묘사가 소략하다고 했지만 다른 고소설 작품에서도 실내 공간 묘사를 자세하게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방에 대한 언급은 대개 ‘어떤 인물이 방에 들어가’ 정도로 처리되곤 한다. <춘향전>의 춘향 방 묘사가 장면화의 예로 거론되기는 하지만, 그 열거는 사실적인 묘사라기보다는 관념적인 묘사에 가깝다. 실제로는 방안 가득 사방을 둘러 온갖 그림과 글씨를 거는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예문 ③의 묘사는 구체적이며 사실적이라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소현성의 서재는 마치 신선의 공간처럼 탈속적으로 묘사된 반면, 소월영의 서재는 온갖 화려한 문방사구들로 가득하게 사실적으로 묘사되었다는 점 역시 흥미롭다. 조선시대의 공간은 성별 구도에 따라 차별적으로 기획되어 있다¹⁹⁾는 점을 상기해

19) 17세기를 지나면서 조선에서는 공간 분할에도 내외법이 적용되기 시작한다. 즉 공간

볼 때 유교적 가부장제 이념을 지향한다고 평가되는 <소현성록>의 서술자가 작품에서 긍정적인 인물로 그려지는 상층 여성의 공간으로 규모가 큰 서재를 선택해서 사실적으로 묘사한 것은 일반적인 기대를 넘어선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설정이라 하겠다.

2.2. 삽입문

<소현성록>에 삽입되어 있는 문장들은 거의 50개에 이르고 문장의 종류도 다양하다. 글을 쓴 남녀 비율을 보면 남성이 쓴 횟수가 여성에 비해 한 배 반 정도 많으며²⁰⁾, 분포를 보면 권4 이후부터 등장하기 시작하여 권6이 10개의 삽입문으로 제일 많고 권7(5개), 권8(6개)까지도 제법 많은 삽입문들이 제시되어 있다. 권6부터 권8까지 삽입문의 빈도가 높은 것은 이 부분의 서사가 바로 명현공주 사혼(賜婚)과 맞물려 대궐과 소부가 교지와 상소를 빈번하게 주고받았기 때문이다. 문장의 종류는 칙독을 포함한 편지글, 상소, 전교, 표, 비답, 제문, 유서, 절구, 격서, 소지, 노래, 찬, 칙서 등으로, 그 중 비중 있게 제시되는 삽입문은 표문과 편지글이다.

표문과 편지글을 제외한 삽입문들은 그 장면에 실감을 더하는 효과는 있으나 서사 전개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 하여 사실을 다시 확인하는 정도에 머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비해 표문과 편지글은 사건의 흐

역시 젠더적 성격을 띠게 되는데 안채/바깥채, 규방/사랑, 비가시화되어야 하는 영역/가시화되는 영역 등의 공간 분할 역시 남/녀, 내/외의 성별 구도에 따른 것이다.

20) 그런데 이 작품의 삽입문들에 주의를 기울여 읽다 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글을 쓴 이의 비중은 남성이 높으나, 서사 전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 글들은 여성 인물들의 삽입문들이라는 점이다. 특히 소월영의 경우는 글쓰기의 전략적 측면이 두드러지는데, 작품에서 그녀가 관련한 세 편의 글 중 소월영의 이름으로 제시되는 것은 조카 수빙의 외모에 대한 절구 하나뿐이다. 다른 두 경우는 소월영이 자신의 이름을 감추고 대신 써 준 글이다. 매우 뛰어난 설득의 수사를 구사하는 소월영은 자신의 이름을 내걸지 않고 배후에 존재하면서 집안의 갈등을 조율하는 자로 존재한다.

름을 바꾸는 중요한 계기로 작동하기도 하며 삽입되는 글의 길이 또한 상당하다. 편지글은 주로 집안사람들끼리 주고받고, 표문은 황제에게 향한 것이다. 황제에게 올리는 표문은 주로 명현공주 사혼의 갈등 상황에서 삽입된다. 소운성의 목숨을 살려내는 형씨의 표문, 황후가 소부의 입장을 인정하게 되는 석씨의 표문, 공주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소현성·소운성 부자의 표문 등이 그것이다. 이에 비해 편지글은 일상생활 가운데 오고가는 데 소현성이나 양부인 혹은 소월영이 대신 쓴 편지들이 삽입되어 있다. 상대의 마음을 거스르지 않으면서 자기주장을 관철해 내는 글을 쓰기 위해서는 고도의 글쓰기 전략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작품의 삽입문 중에서 글쓰기의 전략이 가장 돋보이는 것은 소월영이 화씨를 위해 써 준 두 통의 편지글에서이다. 그 중 한 편을 예로 들기로 한다.

④……첩이 비록 무상하나 어려서부터 성현의 글을 넓어 잠간 네의를 아느니 그옥이 생각건대 나라희 황후와 황태 존흐미 혼가지오 집의 가장과 가피 둥흐미 혼가지니 군지 슈신 계가 티국 평탄하지본이라 하나 즈고로 남지 국스를 다스리면 집 일을 다 보미 어려운 고로 승상이 대신이 되어 묘당스틀 슬피므로써 결을티 못하여 니홍을 맞더 니외를 다스리게 하니 홍은 외인이라 갖가이 절친이 아니오 뉘히 디고 아니” 비록 인물이 근실타 하나 엇디 부등 세쇄흐 일을 알게 흐리오 홍이 둥권을 임흐매 녀녀 서락 아유흐야 가등 죠고만 이를 문져 홍에게 취품흐 후 아등의 말을 조츠니 첩이 그옥이 붓그려 흐기는 첩의 인시 미세흐야 상공의 가모소임을 능히 못하며 니조흐는 공이 업서 흐 하관으로 가스를 맞디는가 우려흐더니 급일 완경흐른 승상의 업기를 기다려 놀나 흐미 아니라 존당이 평안흐야 여러 즈녀를 희롱흐시거늘 한가흐 재물 타 소운 석 삼부인을 더브러 후원을 보며 또 산슈 성호를 보아 명년의 즈툭을 티고져 흐미오 그 실은 완경지심이 아니오니 홍을 잡아 미른 무레흐 말을 아니흐야 쥬모를 욱흐니 상공이 오히려 첩을 모욕흐미 듯디 못흐였거늘 제 가신으로서 어즈러운

말을 흐므로 일시 분이 내려나매 춤디 못하고 또한 승상씨도 제가의 해로오
 므로 승상이 밧기 겨시면 내 스이의셔 호령을 못허려니와 상공이 도당의 드
 러 도라을 조만을 덩티 못허여시니 집의 기쥬 엷다 허야 노복과 흥이 무례커늘
 가피 일절을 고집히 디희여 몰허더가는 위의를 아니 붓들미 즈고로 첩이 비
 록 외람흐고 당돌흐나 흥을 미고 존고씨 주허야 다스려 비록 승상이 나가시나
 감히 범스를 무례히 못흐고 집의 규정흐는 괴탄허며 알게코져 허미오 즈형흐는
 넘나미 아니러니 이제 흥을 안치고 내당 시녀를 잡아내여 티니 이는 시녀를 티미
 아니라 첩을 다스리미라 첩이 감히 양인을 원망티 못흐나 일로 보건대 부〃지의
 삼강과 오륜의 드디 말고 부똥하관을 부〃디에 너허미 가허거늘 네 성현이 엷디
 그릇허야 똥흔 하관은 빼디고 경흔 부똥 드렛는고 고이히 너기며 또한 부〃를
 니르디 말고 첩으로써 봉우를 취허이어도 첩은 상공을 아란 디 십이년이오
 흥은 다스 허라 선후를 또한 분변티 아니시니 흥을 위흔 정성은 가히 지극거
 니와 또한 첩의게는 박절흐도다 각〃 집의 잇고져 허시니 녀즈의 삼종지의 똥
 하니 상공은 삼강오륜을 니져버리시나 첩은 녀필중똥며 원부모형테를 디희느니
 상공이 브릴던데 복으를 품고 의디허야 눈기 삼종을 오롯기 허리니 임의로 처티
 허라 광광의 처와 녀무로 비기시니 감히 발명을 못흐나 다만 무측턴〃,니
 엷던 사름이며 녀후는 또 엷던 겨집고 이 글을 보매 모골이 송연흐니 유〃
 창턴이 내 뜻을 알 밧기 사름은 모르리니 첩이 임의 존문의 후환이 될 재면
 불기 알고 처티 아니미 한테의 일과 곳디 아냐 강흔 가신과 노복이 업스니
 내 또 업서야 가흔디라 썰니 제스허야 후리에 인테에 변과 골육의 죽기를
 데방흐고 뉘웃디 말플 진정으로 바라노라 허엇더라.....21)

④는 소월영이 화씨를 위해 써 준 대필편지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 이
 작품에서 읽는 재미를 배가시키는 편지는 소월영의 편지 두 편이다. 소현
 성이나 양부인의 편지 같은 경우는 자신이 판단하는 대로 전달하고 주장
 한다. 논리정연하기는 하나 그 이상의 수사(修辭)나 전략은 거의 구사하

21) 권4, 116-119면.

지 않는다. 소월영 경우는 두 번 다 화씨를 위해 대필을 해 주거나 쓸 내용을 준 경우인데, 이때 화씨는 남편에게 별거 제의를 받았거나 시어머니에 의해 쫓겨날 위기에 처한 편지를 받은 상태였다. 즉 그들의 마음에 맞는, 그래서 용서를 구할 만한 답장을 써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그러나 화씨에게는 도저히 그런 회유와 설득의 도구가 없었고 결국 두 번 다 소월영이 자기 동생과 어머니에게 화씨 대신 편지를 쓰게 되는 것이다.

위 예문은 소현성이 없을 때 외부 공간의 일을 맡아보던 이홍에게 증문을 열어달라고 하다가 거절당한 화씨가 첫째 부인의 위세로 이홍을 결박하고 벌 준 사건 때문에 쓰게 된 것이다. 이 소식을 알게 된 소현성은 화씨의 시비(侍婢)를 별주고 화씨와 별거하겠노라고 편지를 쓴다. 소현성에게는 내외법에 따라 내부 공간에 속해야 마땅한 화씨가 외당에 나가고자한 것부터가 문제인 것이다. 소월영은 이런 소현성의 마음을 돌려놓기 위한 방법을 찾았다. 우선 겸손함을 바탕으로 하면서 황후와 황제를 빌어와 가장과 가모에 유비한다. 이 서술은 논리에 입각하여 일단 설득의 지점을 확보하려는 시도이다.

이렇게 시작한 편지는 결국 ‘남자가 나라 일을 하려면 집일을 다 보기가 어렵다’고 하면서 그 집일의 주체가 누가 될 것인지를 묻고 있다. 결국 ‘친족도, 지기(知己)도 아닌 이홍에게 큰 권한을 주면’ 종들도 가모(家母)인 자신이 아니라 이홍에게 우선순위를 둔다면서 질서를 문제 삼고 있다. 질서는 소현성도 중요하게 간주하는 가치이다. 이렇게 상대방의 가치와 논리로 설득의 지점을 마련하는가 하면 문제가 된 사건을 원래 사건과는 전혀 다른 맥락의 사건으로 재구성한다. ‘경치를 구경하러 간 것이 아니라 내년 누에치기를 상의하러 갔던 것’이라고 둘러대는 것이다. 상대방인 소현성이 듣기 원하는 내용을 제시하는데 이런 선택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뜻을 철회할 명분을 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런 면모는 규방 안에서만 생

활하는 여성의 감각이라기보다는 맥락에 따라 능수능란하게 대응하는 정
치적 감각에 가깝다. 더구나 ‘자신이 성을 참지 못한 것이기는 하나 이홍
의 태도는 소현성이 집을 다스리는 데에도 해롭다’고 하여 권력을 지닌
자와 자신이 한 편이 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러면서 ‘남편이 아내인 자기보다 하급관리를 더 중히 여기니 부부의
의리를 삼강오륜에서 빼고 대신 집안의 하급관리를 넣는 게 좋겠다’고 하
며 짐짓 시치미를 뚝 떼다. ‘옛 성현들이 어찌 잘못 알고 중요한 관리는 빠뜨
리고 가벼운 부부를 넣었는지 이상하다’고 하는 다음 대목에 이르면 절로
실소가 나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심각한 가운데에서도 유머 감각을
잊지 않는 대목이라 하겠다. 이렇게 웃음으로 긴장을 늦춘 후 별거하지는
제의에 대하여 ‘여자의 삼종지위는 중요하다’며 ‘당신은 삼강오륜을 잊었
지만 자신은 여자의 도리를 지키려 한다’고 하여 별거 제의가 소현성의
허점이 되도록 서술하였다. 웃음 후에 빈 곳을 공략하는 대목이다. 그리고
서 그 마음 변치 말고 부디 지키기 바란다고 하며 방어적인 내용으로 끝
을 맺었다.

이 편지의 내막을 알게 된 소현성의 반응은 ‘화씨의 행복도 받지 못한
채 누이의 말을 보태어 도리어 나를 책하는 말이 바르고 이치에 맞게 되
어 버렸으니 어찌 우습고 분하지 않은가’였다. 이 편지글에서는 소월영이
라는 여성 인물의 논리적 힘과 융통성 그리고 유머 감각과 수사가 돋보인
다. 소월영이 화씨를 위해 마련한 또 하나의 편지는 양부인의 진노에 의
해 화씨가 소부에서 쫓겨나기 일보직전에 소월영에 의해 구성된 것이
다²²⁾. 그렇기 때문에 독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써야 양부인의 단호함을 누

22) 소월영이 두 번째 대필편지를 쓰게 되는 이유도 화씨의 아들 윤경이 ‘자신들도 시문
이나 상소문 등에는 익숙하고 문재(文才)는 있으나 다른 이의 마음에 맞게’ 쓰는 데
에는 재능이 없다며 고모 소씨(소월영)에게 부탁하자고 추천했기 때문이다. 윤경은
이때 상서 벼슬을 하고 있었다.

그러뜨릴 수 있을까 하는 호기심을 가지고 삽입된 편지를 읽게 되고, 삽입된 글이 독자들의 그런 기대를 만족시킬 만큼의 수사와 논리를 확보해야만 수신인들이 마음을 돌리는 것으로 연결되는 서사 전개가 꺾진성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기능을 해야 하는 글을 그대로 보여주기 방식으로 전달한다는 것은 작가에게도 결코 만만치 않은 작업이었을 것인데, <소현성록>의 작가는 그 선택을 하였다. 이렇게 설득의 구체적 전략을 재현하여 독자들에게 검증 가능하도록 한 <소현성록>의 삽입문들은 서사의 개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 바가 있다.

2.3. 대화

현재 알려진 17세기에 창작된 고소설 중에서 <소현성록>처럼 많은 대화 장면이 재현된 작품은 찾아보기 어렵다. <소현성록>의 대화에 대해서는 이미 연구자들이 주목한 바 있는데, 대화가 작품의 서술 분량을 늘이는 데 기여²³⁾했다거나 일상어에 공식적 가치를 부여하고 여성인물들의 역할 강화와 작품의 비판적 성향²⁴⁾에 기여했다는 연구들이 이에 해당한다. 기존 논의의 경우는 대화 혹은 대화체에 주목하기는 했으나 재현된 대화 속에서 전개되는 관계의 역학이나 수사에 대해서는 분석하지 않았다. 그런데 삽입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현성록>의 대화들은 그 대화 속에 권력 관계에 따른 태도와 수사의 구사가 자세하다. 다른 국문장편소설의 대화에서처럼 <소현성록>에도 등장인물들의 행위와 맞물리며 주고받는 비교적 짧은 분량의 대화가 빈번하게 등장하며, 이런 대화의 구사가 매우 자연스럽게 전개되고 있다. 이에 비해 <소현성록> 대화의 고유한

23) 정길수(2005), pp.241-249. 정길수는 <소현성록>의 대화 부분을 '정적 서사'라 명명하였다.

24) 정창권(1998), pp.304-310.

성격을 드러내는 부분은 상황하게 재현되는 대화들에서이다. 본고에서는 <소현성록>의 이 같은 대화들을 예로 들어 이 작품의 대화를 통해 드러나는 특징에 대해 살피고자 한다.

⑤……이때 석참정 부인과 화평장 부인이며 소윤 이인의 존고와 쇼고 등이 다 모닷는디라 각” 그 녀와 며느리 극진호를 헝희하고 두긋기며 좌우의 티하를 조금도 스양티 아니티니 한참정 부인이 소시드려 무리 양부의 와 거시 물 듯고 시녀로 청호야 보오물 구하니 부인이 곤청호를 듯고 합니로조차 나와 좌의 네를 듯고 안기를 덩호매 좌등이 바라보니 년과 오십이 디나시디 반분 도 쇠히미 업서 일발이 불빅호고 용피 풍영호야 비컨대 호워흔 흥년화와 성 흔 빅모란이라도 표담 호워호를 밋디 못홀디라 윤턱호른 헝둥 구술 갖고 췌 락흔 풍피 텃둥 섬궁 갖터여 구름 갖튼 귀밧과 빅설 갖튼 기피의 심컨대 비 견호리 업홀디라……진짓 녀등군왕이라 의복이 무식호미 심호니 더욱 그 용 피 발월호야 구름 스이 엿보는 들 갖더라 좌등이 혼 번 보고 각” 숨을 길게 쉬고 서러 도라보며 도로호 놀나와호고 모진 법을 디흔 듯기 국축호니 소윤 등 이 그옥이 웃더라……한참정 부인 위시와 뉴상셔 부인 단시 티샤 왈 부인이 괴너즈를 두시고 돈오의 용추호를 얽히 아니 너기샤 주단의 친호므로써 허 호시니 식뵈 유헌 뇨도호야 숙녀의 풍치 이시니 이는 다 부인의 덕택이로소 이다 양부인이 손샤 왈 미망지인이 용넬흔 즈식을 성문의 보내옵고……구천 의 가나 결초보은호미 이시리로소이다 단부인이 디왈 첩의 식부는 부모 업손 인성이어늘 부인이 친녀의 넘게 호시니 놓흔 뜻을 김히 감격호야 호는이다 위시 다시 샤례 왈 오지 창녀를 모도와 방탕호미 심호고 무고히 지취호디 현 뵈 조금도 호티 아나 전후 십여 년의 급흔 우음과 더도흔 노식을 보디 못호 니 진실로 규목의 덕이 잇는디라……양부인이 스양 왈 쇼네 비록 잠간 던도 흔 거시 업스나 엿디 부인의 이곳티 과당호시를 당호리오 쇼녀의 우인이 강” 호야 유순흔 덕이 적으니 첩이 도석으로 근심호는이다 호물며 윤오는 첩의 양네라 그 정시 참혹호니 엿디 괴출이 아니라 호야 즈익호미 헝호리

오……이때 화평장 부인이 또한 처엄으로 양부인을 보옵고 소원과 석시를 구경
함때 마음이 차악하야 보야호로 그 녀의 온전히 복을 누리미 소참정과 양부인
의 덕이며 쇼고 등의 현심의 힘납은 줄 알고 좌를 떠나 양부인 알피 나아와 웃기
술 녀의고 사례 왈 쇼첩의 더러운 녀의 떨니는 규목의 덕이 업고……다 부인
의 일월 꺾친 덕덕과 소원 낭부인의 보호하신 은혜로소이다 양부인이 혼연
쇼왈 어이 이런 말씀을 하시노는 식취 내 집의 오므로 허물된 일이 업거늘
무관히 지취하니 또한 턴쉬어니와 년쇼녀즈의 마음이 불평하미 이시나 이
곳 네시라 엇디 허물이리오……설파의 눈을 드러 설부인을 보니 유환정당하
고 풍영쇄락하야 위외동지 크게 범되 이시니 심분 공경하며 그 녀와 품격
이 갖디 아니를 그옥이 칭찬하더라 설부인이 몸을 두로혀 석시를 향하야 은근
이 사왈 노신이 조식으로써 부인의 성화를 듯잡고……석시 녀용피석 디왈 쇼첩
이 불혜한 기질노 죄 어드미 만호디 화부인의 어엿비 너기시를 녀스와 안향
의 즐거미를 어덧더니 금일 존전의 죄업고 과장하시를 듯조오니 감격등 참안
하이다 진부인이 또한 양부인의 사례하고 화시드려 각별이 칭샤 왈 첩신의 녀
의 성정이 소졸하고 우인이 하압되거늘 부인과 엇게를 곱와 향녘이 되니 부
인이 죄티 아니시고 어엿비 너겨 화락하시니 진실로 은혜난망이로소이다 화
시 또한 손샤하며 불감하를 일코터라 서르 환환을 파하고 술이 두어 순 디나매
소원화석 등이 쥬기를 썩여시니 취식이 마치 삼식도해 조로를 머금고 빅옥
의 연지를 비취 곱고……25)

⑥……석패 인하야 문의 셔셔 드디 아니니 형시 지삼 근청하디 조피 엇디
드디 아니하시니잇가 석패 쇼 왈 낭군의 거동이 슬하야하시니 내 엇디 들
니오 날을 수이 가과라 하는 눈취라 노인이 쇼년의 슬하야하는 일은 아니려
하느이다 성 왈 뒤셔 석과량이 눈취 모르고 보정하야 망녕되다 하디노 늘근
눈이 사름의 심정을 스맛 아는디라 내 본디 조모를 괴로와 가시과라 하느니
엇디 녀티 업시 문의 셔시리오 석패 대쇼하고 드러 안즈며 닐오디 이 도적놈

25) 권4, 57-64면.

소운성이 네 아모리 슬혀여 하여도 내 브디 이시리라 싱이 이에 형시를 도라보
 아 곁오디 그장 놀납다 석조피 경직의 믿음이 두 가지로 변하시니 반드시 사괴
 를 들녘는디라 부인은 가히 청흔흔 약을 프러오라 석패 그 등을 티며 꾸지즈디
그디 부친은 일즉 날을 보면 니러나 마즈며 방석을 피하여 쏘고 언어의 존경히미
극히거늘 내 뜻의 혜오디 승상의 공순히미 이 그트니 승상의 아들의 다드라는
더욱 과도히리로다 했엇더니 엇디 생각디 아닌 못빨 거시 이셔 아버를 고답저이
 너겨 별네를 내여 날 곳 보면 사오나온 눈으로 흘기여 보며 능흔 입으로 슈육홀
 줄 알니오 기둥의 더욱 포한하고 사오나온 거스 소삼낭이라 싱이 오직 함쇼
 왈 내 원컨대 긴 스연을 펴리니 조피 지저괴디 말고 드르쇼셔 우리 대인의
 조모 공경하시는 바는 효성의 네법을 닷그실 뿐 아니라 조모의 괴롭고 부스
 지히는 말슴을 두디 아니라하시는 뜻이 어니와 우리 그튼 성변흔 형태의 사
 오나온 믿음들이 부피 그즈시고 존당이 반석그트시니 부모 존당의 여론흔
 성을 갈녀히니 미쳐 덧브티 할미고 정성이 가디 못히니 사랑흠고 공경흐은
 믿음은 바히 업는디 고운 말이나 하고 드니면 슬민 믿음이나 더오디 아니련
 마는 동서로 드니며 혼 번 거짓말혀 슈칙게 하고 두 번 헛말혀 매맞치니
 불 적마다 식툃히니 자연이 믿음의는 괴로이 너기고 입속의는 죽으랏 말이 즈
 출흔는디라 바로 보기는 슬코 아니보면 노혀여 흘 거시니 강잉혀여 팔목혀려
 하니 문득 흘기여 보는 줄을 씨뎡디 못혀여 미우를 뺑기니 집안히 우리 형태
 조모 괴로워 헉기로 화괴 스라디니 진실노 사오나온 사람의 해 비경흔 고로
 현인 군즈 등이 어린 빗출 내디 못혀고 듀야 뺑기느니 조피 오히려 모르시는
 가 너졌더니 알고도 짐춃 그리홀 작시면 더욱 념티를 모르는 사람인가 시브
 니 쥬쳐 어즈러오미 큰 근심이로소이다 석패 어히업서 크게 웃고 싱이 또흔
 금션을 티며 대쇼히니.....²⁶⁾

⑤는 양부인의 친정 조카가 과거에 급제한 후 여러 친인척들이 한자리에 모여 인사를 나누게 되는 장면으로, 대화와 더불어 묘사가 인상적이다.

26) 권9, 39-41면.

거의 8면에 달하는 이 예문은 거의 여성 인물들의 대화로 연결되어 있다. ⑥은 명현공주가 죽은 후 운성이 형씨와 화목해지자, 자신의 친척이자 운성의 첩이 된 소영의 처지가 안타까운 석파가 운성을 찾아가서 나누게 된 대화이다. 이 예문들을 이렇게 길게 인용하는 것은 <소현성록>의 경우, 이같이 각 인물들의 대화를 충실하게 묘사해서 보여주는 방식으로 서사를 이어나가는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이렇듯 풍부한 길이를 확보하면서 전개되는 대화 장면은 그 장면의 현장성을 살리고자 하기에 인물들 간의 긴장이나 애뜻함 혹은 미묘한 기류 등도 함께 전달하는 효과를 유발하기도 한다.

예문 ⑤에 등장하는 여성인물들은 소부의 여성이거나 혹은 양부인과 혼인 관계에 있는 안사돈들이다. 이 장면은 석씨의 어머니 진씨, 화씨의 어머니 설씨, 월영의 시어머니 위씨, 윤소저의 시어머니 단씨가 각기 딸들을 데리고 모여 있는 것으로 시작한다. 진씨가 양부인 뵈기를 청하면서 양부인 및 석씨, 화씨, 월영, 윤소저 등이 언급되고 이때 양부인에 대한 묘사가 이어진다. 이 묘사를 보면 원이 넘은 양부인의 외양이 좌중을 압도하는 것으로 그려져 있으며 위 예문에서는 생략되어 있지만 양부인에 필적할 만한 아름다움으로 석씨의 외양을 들어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는 이를 바라보는 여성들의 시선이 언급되는데 그녀들은 양부인과 석부인의 미모를 보면서 '위축됨'을 느끼는 것으로 서술되어 있다. 은성한 모임에 함께한 지체 높은 여성들이 끊임없이 서로를 탐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이 장면에서 서술자는 무수한 시선들이 엇갈려 가는 속에서 자신들의 위치와 이에 합당한 말을 찾기 위해 긴장을 늦추지 않는 귀부인들의 모습을 포착해 낸다. 겉으로는 우아하지만 치열하고 복잡한 심리가 엿히는 장면이다. 먼저 위씨와 단씨가 양부인의 딸을 시집보내준 것을 치하한다. 사실 권2에서 월영의 남편 한씨와 시어머니 위씨가 월영에게 얼마나 잘못했는

지를 이미 서술했기 때문에 이를 아는 독자가 권4의 이 장면을 읽는다면 양부인의 심사가 그리 편하지만은 않았으리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그러나 양부인은 그런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내색하지 않은 채 못한 자식을 받아 준 데 대해 '구천에 가더라도 이 은혜는 반드시 갚겠다'며 감사를 표한다. 그러자 위씨는 결국 자백하듯 자기 입으로 아들의 방탕한 과거를 스스로 언급하고 이를 받아 양부인이 자기 딸에 대한 신뢰를 표현하면서 동시에 겸양한다. 그 후 화씨의 어머니 설씨가 '못난 딸'이 평안하게 사는 것을 감사한다. 그러나 사실 화씨는 소현성이 둘째부인 얻는 바람에 거의 죽기 직전에 이르렀고, 그때 친정식구들에게 자기 사정을 토로했기 때문에 설씨 또한 이를 모를 리 없는 상황에서 하는 말인 것이다. 여기에서는 둘째 며느리를 들이기로 결정한 양부인 역시 자유로울 수만은 없는데 양부인은 이를 '하늘의 운수'로 돌려 정당화한다. 이에 설씨는 석씨에게 감사를 표하고 석씨의 겸양 후 석씨의 어머니 진부인이 등장하여 결국 양부인에게 감사를 표한다. 그러나 석씨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시집에서 쫓겨나 고초를 당했으며 혼서지까지 찢긴 적이 있었고 진씨는 그때 현성의 처신에 대해 그 매몰참을 비판하였던 과거가 있다. 그러나 이 대화 장면은 결국 모두의 겸양과 상대방에 대한 치하 및 감사로 우아하게 마무리되고 기분 좋은 술자리 장면으로 연결된다.

이 장면에서는 대갓집 안사돈들의 인사치레 방식에 대한 호기심과 더불어 인물들 상호 간의 거리 및 갈등 역학이 다 다른 데서 오는 긴장감을 엿보는 재미가 있다. 특히 화씨의 어머니는 자기 딸이 둘째 부인으로 인해 마음고생을 하긴 하나 투기라는 칠거지악이 신경 쓰일 터이고, 석씨의 어머니에게는 자기 딸을 터무니없이 소박하고 고생시킨 시집 식구들을 예의 갖추 인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소월영의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방탕하고 판단력이 약해 며느리에게 저지른 잘못을 알고 있다. 이 역

학을 짐작하면서 이들의 대화를 읽어나가는 독자들은 그들의 속내와 처세를 위한 교양을 동시에 짐작해 보게 된다. <소현성록>에는 사건 전개에 긴요하지 않은데도 이같이 상당한 분량을 할애하여 인물들 간의 미묘한 갈등을 그려내거나 웃음을 연출하는 장면들²⁷⁾이 서사 중간에 간간히 끼어들곤 한다. 다른 고소설 하위유형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이런 장면이 야말로 국문장편소설이 제공하는 서사의 즐거움일 가능성이 있다.

이번에는 ⑥의 예문을 보자. 석파와 운성이 대화를 나누는데, 운성이 자신의 말에 한 마디도 지지 않자 석파는 오기가 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서조모인 내게 이렇게 대접할 수가 있나 싶어 기막히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운성은 ‘지저귀지 말고 들으라’, ‘한순간에 두 가지 마음을 품었으니 사악한 기운이 들었대’면서 기운을 ‘푸는 약을 가져오라’, ‘조모 때문에 괴로워 죽으라고 하는 말이 절로 나온다’고 한다. 운성도 순발력과 냉소적인 재치를 갖추고 있다. 이 앞 장면에서도 소운성은 언어유희를 통해 석파의 입을 막는데 석파가 말문이 막히는 이유는 운성이 한 마디도 지지 않고 말장난을 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석파 역시 소영을 위해 운성의 마음을 얻어야 하기 때문이기도 했다. 게다가 석파는 서조모이다. 운성이 알아서 자신을 대우해 주기를 바라지만 적장손인 운성이 무시해 버리면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석파의 위치인 것이다. 운성은 힘을 부릴 수 있는 상황에서는 그 힘을 부리는 인물이다. 소현성과 사이가 가까운 석파 때문에 야단맞을 일이 생기기도 하기에 운성 입장에서 그녀가 꺼려지는 것은 이해 가능하나, 서조모의 말을 ‘새소리’로, 복잡한 심사에서 나온 그 행동

27) 예를 들어 권9, 66-74면에서는 며느리를 본 소월영과 윤부인이 상대방 며느리 험담을 주제로 주고받는 대화가 재현되고 그 과정에서 겪게 되는 심리적 변화를 그리고 있다. 이 장면 역시 서사 전개로 보면 요긴하지 않으나 9면에 걸쳐 서술되며, ‘소현성도 귀를 쫓긋 세워’ 그 대화 내용을 들으려 하는 것으로 그려져 매우 흥미로운 대화임을 암시하고 있다.

을 ‘푸닥거리’의 대상으로 회화화하고 심지어 대놓고 죽으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고 하는 운성의 말은 마음 편한 웃음을 유발하지는 못한다. 하고 싶은 대로 발화해 버리는 것은 힘은 있으나 배려는 약한²⁸⁾ 이의 것이기 때문이다. 신분 사회에서 적통, 정실의 지위와 서얼, 첩의 지위는 위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당시로는 운성이 석파를 대하는 태도가 자연스러운 게 아닐까 질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작품 내내 서모인 석파에게 늘 공손하게 대했던 소현성의 태도와 비교해 보면 운성의 태도는 분명 불손하다.

이에 비해 여성 인물들의 발화에서는 대화를 이끌어 내거나 마무리하는 재치가 돋보인다. 소씨(소월영)²⁹⁾나 화씨³⁰⁾의 경우는 차가운 지성이,

28) 소운성의 이런 면이 확연히 드러나는 또 하나의 대화 장면으로는 동서 손생을 궁지에 몰아넣고 놀린 후 자기의 절대적 우위를 확인한 후에야 그치는 대목을 들 수 있다. 말재주, 외양, 시재(詩才)가 다 모자란 손생은 완전히 회화화되고 결국은 울음을 터뜨리고야 말았다. 권9, 68-76면.

29) “……소시 닛드라 우어 왈……여러 양형이 오늘 석상의셔 넘치를 다 닛고 자기 부인들을 뵈와 브라니 심각건대 혼인헌연 디 십여 년이나 헌디 새로이 등회등 브라미 고 이허야 헌더니 모형의 [모시는 양상셔 츠뵈오 장원의 처] 말을 드르니 저 거게 본디 부인을 모든 둠이면 본디 하니 이 반드시 요스이 별 네문을 다 그디 둠이 헝헝나가 시브다 좌둠이 다 대쇼왈 현미 우리를 농허미라 연이나 한싱도 단정티 아니커늘 현미의 말이 었디 쾌허노 소시 낭쇼왈 한싱의 단정브정은 내 모르거니와 대강 눈은 성허야 병 드디 아나시므로 혼 번 본 사름은 다시 보디 아닛느니라……, 권4, 68-69면. 양부인 동생의 아들이 과거 급제하자 그 축하연에 참석했던 소씨(소월영)가 한 말이다.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양공이 그 부인을 자꾸 보자 소씨가 새로운 예법이나고 비꼬며 편잔을 주었다. 그런데 소씨의 남편 한생은 풍류남으로 알려진 인물이라 그 자리에 있던 이들이 자신들이 우월한 지점을 확보하고자 그 남편을 거론한다. 이에 대해 소씨는 남편의 단정함 여부는 모르나 다만 눈이 성해 한 번 보면 죽히 안다는 식으로 받는다. 예법 논의를 물리적인 시력 얘기로 전환하여 국면을 다시 자기 쪽으로 유리하게 만드는 소씨의 화법이 돋보이는 장면이다.

30) “……석패 머리를 혼드러 왈……쇼시적은 혼갓 고을만 아녀 츠티와 향긔 어리여 즈연 사름으로 허여곰 빼 식고 믋음이 녹게 하던 거시나……화시 쇼왈 서모의 참정 기리는 소리 너모 과도허이다 사름이 어려실 적은 약허야 즈연 츠티 잇느니 어느 아히 그러티 아닐 거시라 참정이 독보허리잇가 허믈며 사름이 보면 믋음이 녹고 빼 식더라 하니 기특디 아나 해로운 얼골이로소이다 좌위 일시의 웃고 왈 화부인 말슴이 정합허다

석파의 경우는 전략적 지혜가 가늠되기도 한다³¹⁾. 그리고 이들의 재치와 순발력은 발랄한 웃음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또 여성 인물들의 대화는 냉소적인 경우라도 한바탕 웃고 끝낼 수 있는 정도의 것이다. 이에 비해 남성 인물들의 대사는 여성 인물들의 그것처럼 매력적이지 않다. 군자형 인물인 소현성은 가르치는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당대의 지배 이념인 유교 이념에 따라 발화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당한 말씀이기는 하나 발랄한 유머 감각은 찾아보기 힘들다. 소운성의 발화는 권력 관계에서 우위를 차지한 이가 보일 수 있는 폭력적 언사를 보여준다. 그의 대사는 삶의 질곡을 경험하지 못한 부잣집 도련님의 한계를 그대로 노정하고 있다.

3. <소현성록> 보여주기 서술을 통해 드러난 서술 지향

앞 장에서는 묘사, 삽입문, 대화 등 <소현성록>의 보여주기 서술의 다양한 양상과 특징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앞서도 언급했듯 보여주기 방식으로 서술된 부분은 마치 서사 전개가 멈추는 지점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이 부분들 역시 서술자의 서술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전달되는 것이다. 이

현대……”, 권4, 44면. 소부 여성들이 모여 ‘소현성과 그의 자식들 중 누가 더 잘 생겼는가’ 하는 문제로 갑론을박하는 장면이다. 석파는 소현성의 용모가 더 뛰어나다고 하면서 ‘빠가 시고 마음이 녹게 하는’ 용모라고 과장법을 사용해서 강조하였다. 그런데 이에 대해 화씨가 ‘사람이 보면 빠가 시고 마음이 녹게 하는 용모라니 기특한 것이 아니라 해로운 얼굴’이라고 받는다. 화씨는 직설적인 화법을 사용하는 인물이어서 대화에서 재치가 돋보이는 경우는 드문데, 이 장면에서는 상대방의 과장된 말을 문자 그대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상대방의 의도를 무화시키고 있어 순발력이 돋보인다.

31) “소시 쇼왕 서모의 화려한 말이 본 적마다 새로오니 김히 그 구변을 항복호는이다.” 이 예문은 권4에 있는 것으로 소월영이 석파에게 하는 말이다. 석파의 언변에 대한 언급은 이 외에도 몇 군데 더 있는데, 석파라는 인물은 이렇듯 등장인물들의 발화를 통해 ‘소진장외와 같은 구변’을 지닌 인물로 그려진다.

장에서는 <소현성록> 보여주기 서술의 양상과 특징을 통해 추출 가능한 서술 지향에 대해 살피고자 한다.

3.1. 여성 인물의 강세

<소현성록>은 여성 인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소설이다. 등장인물에 대한 기존 논의들도 여성 인물들의 주체성과 다양한 능력에 대해 주목해 왔다³²⁾. 그런데 <소현성록>의 여성 인물들은 무엇으로 인해 그 같은 평가를 얻게 되는 것일까? 영웅이라면 어떤 혁혁한 행위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남녀의 구분이 엄격했던 그 시대에 상층 여성들이 적극적인 행위를 통해 공을 세울 기회는 드물었을 것이다. <소현성록>의 여성인물들도 그러하여, 이 작품에서 여성들이 취할 수 있는 행위는 제한되어 있다. 중문 밖으로도 못 나가는 현실적 제약 속에서 여성 인물들을 매력적으로 돋보이게 하려면 어떤 서사 전략이 동원되었을까? 그녀들의 능력은 주로 대화나 글쓰기 등을 통해 입증된다. 다시 말해 행위를 서술하는 서사성 강한 말하기 방식의 전개가 아니라 보여주기 방식으로 재현되는 서술 부분들에서 여성들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증거되는 것이다. 이는 당대 상층 여성들의 현실적 제약과 서술 전략이 만나는 지점이기도 하다.

중세 시대에는 미추(美醜)의 문제가 곧 선악 가치판단의 문제와 연관되는 경향이 있었다. 주인공들이 대개 미남미녀였던 것도 그런 경향을 반영하는 것이다. <소현성록>에 등장하는 인물들 역시 대개 미남미녀들이

32) <소현성록>에 등장하는 여성 인물의 강세는 비교적 이른 시기의 연구에서부터 언급되어 왔다. “이 작품은 남성에 비해 여성 인물의 비율이 압도적인 우위로 설정되어 있는데,……”, 정창권(1998), p.308. 백순철(1999), 양민정(2002), 장시광(2003), ___(2004), 서경희(2005)의 연구도 <소현성록>의 여성 인물에 대한 연구들이다.

며, 인물의 외양 묘사 방식을 통해서 여성 인물과 남성 인물들이 공히 그 미모를 인정받게 된다³³⁾. 그러나 공간 묘사의 경우는 사정이 좀 달랐다. 남녀 공히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여성 인물인 소월영의 공간이 상대적으로 돋보이게 묘사되어 있다. 조선시대 양반 여성이 거처하는 대표적 공간은 규방이다. 유교적 가부장제 이념을 추수하는 이 작품의 경우도 여성의 공간은 규방이어야 적합할 것 같은데, 막상 작품에 드러난 곳은 서재에 해당하는 장소이다. 공간은 행위를 규정한다. 규방이었다면 바느질감이나 수틀 혹은 장롱 묘사가 합당하고 그것이 그 인물의 일상을 구성하는 주된 내용들로 짐작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작품은 소월영의 공간으로 서재를 선택하고 그곳을 남자 주인공의 서재보다 공들여 묘사하였다. 그곳에는 그녀가 직접 필사한 수만 권의 장서가 있고 그녀가 그린 그림 또한 무수하게 많다고 하였다. 그러려면 그 공간에서 무수히 읽고 필사하고 그려야 했을 것이다. 즉 소월영의 장서각은 그녀의 일상 공간이자 생활공간인 셈이다. 상층 남성의 서재는 그 남성 인물을 특별한 존재로 부각시키기에 부족하지만 만약 그것이 여성의 것이면 그 여성은 특별한 존재가 되기에 충분하다³⁴⁾.

실은 이 작품에서 여성의 지적 능력이 돋보이는 것은 묘사에서만이 아니다. 평상시 대화에서도 여성 인물들의 순발력이 재치 있게 그려지지만 삼입문의 경우에도 여성 인물의 글이 더 설득력 있는 것으로 그려진다. 물론 소현성이나 운성의 글들도 논리적으로 갖춰진 글이다. 다만 이들의

33) <소현성록>의 경우는 남성 인물들도 아름다운 용모가 강조되어 있다.

34) <소현성록>은 17세기 후반에 창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작품이다. 주지하듯 17세기는 조선 사회가 주자학적 중범 사회로 전환되는 시기이며 이 작품의 독서는 그 후대에 이루어졌을 것으로 미루어 보면 당시 여성들이 학문을 연마하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자기만의 방'을 갖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 여성화가로서는 거의 유일한 신사임당 역시 16세기의 인물이다.

글은 자신들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는 성격이 강해서 상대방의 뜻을 변 화시키려는 지략의 면모가 덜 부각된다³⁵⁾. 벼슬한 남성 인물이 표를 올 리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로, 놀랍거나 신선한 소재는 아니다. 그러므로 이 작품에서도 소현성과 운성의 경우는 표문이나 상소문을 올렸다는 서술만 있고 그 내용이 삽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다수 있다³⁶⁾. 하지만 단지 표 를 올렸는가 아니라 얼마나 명문장을 구사했는가는 여전히 관심의 대 상이 되기에 충분하다. 이 작품에서도 소현성이 올린 표문이 사건의 흐름 을 바꾸는데 결정적 영향력을 발휘한 것으로 서술되는 대목들³⁷⁾이 있다. 그런데 그런 경우, 막상 그 표문은 삽입되지 않기 때문에 소현성이 얼마 나 설득에 능한 수사를 구사했는지 독자들은 확인할 수가 없다. 현성이나 운성의 표문이 삽입되는 경우 중에는 오히려 강경하게 자기주장을 펼쳐

35) 이 작품의 표문, 편지글 등의 경우, 남성의 글보다 여성의 글에서 글쓰기 전략이 더 돋보이는 것은 글을 쓰는 이와 그 글을 받는 이 사이의 권력 관계에서 비롯하는 문제 이기도 하다. 일례로 소부에서 절대적 우위에 있는 소현성의 경우를 보면, 그도 황제 에게 표문을 쓸 때에는 겸양, 완곡어법, 인용, 우회적 표현 등 다양한 수사를 동원한 다. 권6에서 황제의 사훈으로 첫째 며느리 형씨를 친정으로 돌려보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소현성이 연달아 세 건의 표를 올린다. 그런데 첫 번 상소(권6, 9면)는 매우 완곡한 표현으로 썼고, 두 번째(권6, 10-11면)에서도 간곡하게 청하는 어법으로 마무리 했는데 상황이 긴박해지자 더 이상 황제의 은혜만 바라볼 수 없게 된 현성이 세 번째 표(권6, 17면)를 올린다. 그런데 그 표는 청유가 아니라 ‘황제는 마땅히 이렇게 저렇게 하셔야 한다’는 투의 당위로 끝을 맺고 있다. 자신보다 우위에 있는 황제에게 표문을 쓸 때에는 설득을 위한 글쓰기 전략을 구사하던 소현성도 ‘더 이상 상대의 뜻 을 맞춰가며’ 설득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서자 강하게 요구하는 문장을 선택한 것 이다. 즉 소월영이나 형씨가 편지글이나 표문에서 지략을 펼쳐가며 문장을 구사하는 것은 그들이 ‘여성’이어서가 아니라 권력 관계에서 비롯되는 선택이었다. 이런 권력 관계로 인해 성별 권력에서 우위를 지닌 남성보다는 여성의 글에서, 시어머니보다는 며느리의 글에서 설득의 수사가 더 필요하며, <소현성록>에 삽입된 표문이나 편지글 에서도 여성의 글이 더 설득력 있게 마련된 것이다.

36) 소현성의 경우는 권8의 63면, 68면, 권12의 87면, 운성의 경우는 권9의 13면, 권14의 66면 등이 그 예이다.

37) 권8, 63면, 68면.

서 상황이 극으로 치닫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들이 소망하는 대로 문제가 풀려가기는커녕 갈등이 더 치열해지는 상황으로 서사가 전개되는 것이다. 이에 비해 형씨나 월영의 편지글은 그 글로 인해 불리했던 정황이 긍정적으로 바뀐다. <소현성록>의 서술자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꿔낸 남성인물들의 삽입문은 그대로 재현하지 않고, 여성인물들의 삽입문을 재현하는 선택을 하였다. 형씨가 자신의 피로 쓴 표문은 참수형 직전에 놓인 남편 운성의 목숨을 구하고, 월영이 화씨 대신 쓴 편지는 남편이나 시어머니에 의해 시집에서 내쫓길 운명에 처한 화씨의 자리를 보전해 주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 다시 말해 여성들의 글은 그 녀들의 문제해결 능력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³⁸⁾는 점에서 남성들의 삽입문과 차별화된다.

이것은 대화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소현성도, 소운성도 경우에 따라서는 상황을 날카롭게 통찰하고 논리적으로 설파한다. 그런데 말하기에 있어 압도적으로 우위를 점하는 것이 여성이다. 그것은 남성 인물에 비해 여성 인물이 많은데다가 말씀씨도 여성 인물의 발화 부분에서 정체를 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현성의 말하기가 항상 엄정하고 단정하다면 월영과 석파의 말하기에서는 기지와 재치가 반짝인다. 작품 내에서 ‘소진장의 같은 말주변’을 지닌 인물로 인정받는 석파 외에도 양부인에서 수빙소저에 이르기까지 소부의 여성들은 지적으로 훈련되어 있으며

38) 이는 물론 (내포)작가가 의도한 바가 달라서 그렇게 선택했을 가능성도 있다. 즉 남성 인물의 글에서는 문제해결력보다는 자기주장이 강한 목소리를, 여성 인물의 글에서는 강한 자기주장보다는 문제해결력을 보여주기 위해 각각 다른 선택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현성이 표문을 올려 문제를 해결했을 때에는 그 표문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삽입하지 않아 독서의 팝진성을 감하게 한다. 삽입문에서의 이러한 선택은 결과적으로 여성의 글이 지닌 문제해결력을 돋보이게 만드는 데 기여하였다.

일정 수준 이상의 교양³⁹⁾을 지니고 있다. 통찰력을 보여주는 또 다른 여성 인물로는 임씨를 들 수 있다. 운명의 처 이씨가 누명을 쓴 채 가족회의가 열리고 그 과정이 대화의 보여주기 방식으로 서술되는데⁴⁰⁾, 이때 사리 판단이 가장 돋보이는 인물이 임씨이다. 남성 인물인 운의의 말하기는 온당하나 직설적이며 평이하고, 임씨의 말은 논리적이며 사건에 대한 정확한 통찰력을 보여주는 문장들로 구성되어 있다. 심각한 상황에서 주고받는 대화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대화에서도 여성 인물의 말이 만들어 내는 분위기가 더 긍정적인 경우가 많다. 앞에서도 확인했듯 월영과 석파의 화법은 발랄하고 부담 없는 웃음을 유발하는 반면, 운성의 화법은 방자한 기운이 있고 짓궂어 힘의 불평등이 일시에 드러나는 부담스러운 웃음의 성격을 띠게 된다⁴¹⁾.

이 작품의 보여주기 서술을 통해 드러난 여성 인물들은 각자 개성과 정

39) 형씨의 표문을 보면 스스로 자신이 ‘역사서, 경서, 법서’를 보았다고 하였다. 역사서와 경서에 비해 법서는 무엇을 지칭하는지 분명하지 않은데 한비자와 같은 법가류의 책일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형씨가 자신의 지식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는 부분인데, 이 책들은 여성들의 규훈서 범주를 넘어서는 것들이다. 그리고 소부가의 여성들은 형씨만이 아니라 석씨, 양부인, 월영, 수빙소저 등 웬만한 인물들이면 다 비슷한 수준의 지적 배경을 지닌 것으로 나타난다. “……신첩이 비록 규문의 소견이 천누하나 일즉 스경과 법서를 슬피오다……”, 권7, 76면.

40) 권11, 66-71면.

41) 운성으로 인한 웃음이 부담스러움의 극치를 이루는 장면은 아마도 운성이 손생을 궁지에 몰아넣어 결국 울음을 터뜨리게 하는 장면이다. 그 우는 모습을 보면서 운성은 ‘천지조화가 손생에게 물려 특출하다’면서 ‘소리는 미친 개 같고 생김은 굶주린 말 같으며 풍채는 잎 떨어진 나무 같고 재주는 남의 글 도적질하고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에는 거짓말을 잘 하니 과연 영웅’이라고 비꼰다. 이어 ‘저러니 장인이 칭찬하지 않겠는가’라고 하여 그 언급이 자신을 적극적으로 칭찬하지 않은 장인에게까지 미친다. 운성은 한껏 비아냥거리며 독설을 퍼부었다. 이 장면 마지막은 좌중들이 손생의 모습에 모두 웃고 마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운성이 주눅 든 손생을 집중적으로 공략하여 회화화한 후에 유발되는 이 웃음 역시 산뜻하게 기분 좋은 웃음과는 거리가 있다. 권9, 68-76면.

체를 띠고 있다⁴²⁾. 남성 인물들도 뛰어난 것으로 서술되고 있지만 그것은 당위로 그려지고 텍스트 상에서 그 모습이 실감나게 재현되지는 않는다. 이에 비해 그녀들의 교양은 남성들의 지적 영역에까지 이르고 그 중에는 글만이 아니라 그림까지 뛰어난 인물도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묘사나 대화, 삽입문을 통해 구체적으로 서술된다. 글로써 다른 사람의 마음을 돌려 놓는 문제 해결 능력까지 보이는 여성이 등장할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거리를 유지할 줄 아는 여성도 등장한다⁴³⁾. 또 그녀들은 필요한 경우에는 표문을 올려 공적인 영역에까지 영향력을 미치고자 하는 적극성을 갖추었으며, 일상에서는 술도 마시고 투호도 하며 교양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농담을 즐기는 모습도 그려진다. 남성 인물들의 술과 놀이가 음주와 색의 문제로 연결되어 정치의 대상으로 그려지는 것과는 정반대로 서술된다. 이런 서술의 정황으로 인해 남성 인물에 비해 여성 인물들이 상대적으로 더 매력적으로 돋보이게 되는 것이다.

3.2. 꾸밈보다 생김, 생김보다 지적 능력

이 작품의 외양 묘사를 보면 꾸밈새보다는 생김새 묘사에 더 공을 들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미모를 묘사할 때에는 비유법을 동원하여 이목구비

42) 이는 역설적으로 말해 <소현성록>이 묘사, 대화, 삽입문 같은 정적인 서사, 다시 말해 보여주기 중심의 서술이 강화되면서 가능해진 것이기도 하다. 만약 <소현성록>의 서술에서 행위 중심의 서사가 중정적으로 확장되었다면 이 텍스트는 행동에 제약이 많은 상층 여성들의 삶과 능력을 반영하기에 적합하지 않았을 것이다.

43) 자기 문제에 대해 객관적인 거리를 유지하여 궁극적으로 남편과 시어머니의 인정을 받고 우위를 점한 인물로는 소월영을 들 수 있다. 이는 소월영과 형씨의 대화 장면에서 드러나는 사실인데, 소월영은 명현공주 문제로 인해 자살을 기도했던 형씨에게 용기를 내려면서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는 일종의 자기서사에 해당하는 말하기이다. 그 내용에 따르면 그녀는 자신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객관화하여 거리를 확보함으로써 힘든 시기를 극복한 것으로 보인다. 권7, 49-51면.

하나하나를 열거하면서 생김새를 강조하는 데 비해 복식 묘사는 단지 옷감과 옷의 종류, 장신구의 종류를 열거하는 정도이며, 화려함은 색채를 대조적으로 선택하는 데에서 비롯되는 정도이다. 뿐만 아니라 양부인 조카의 과거 급제 잔치 장면을 보면, 소부의 화씨, 석씨, 소씨, 윤씨 등이 ‘미모, 재주, 지혜가 당대에 빼어났’는데, 몸단장을 ‘사치스럽고 화려하게 하지 않아서’ 모두 ‘한 가지 복색’으로 자리에 나타난다⁴⁴⁾. 미모는 타고난 것이어서 그런 것이고, 거기에 무엇을 더 꾸미는 것은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그 잔치 자리에 미인들이 가득하였지만 석씨, 소씨, 윤씨의 미모는 ‘속세를 벗어난 듯한’ 정도라고 언급하면서, 하지만 그녀들은 ‘옷을 차려 입을 수고와 화장하기를 싫어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내용은 바로 그 다음의 ‘빼어난 미모’를 수식하도록 되어 있어⁴⁵⁾ 좌중을 압도하는 미인 세 사람의 미모는 별로 꾸미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아름답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꾸밈보다 생김새를 강조하는 묘사 방식은 후천적인 것보다 선천적인 자질을 더 강조하는 것임과 동시에 검소함을 강조하려는 의도와도 맞물리는 것으로 보인다. 화려한 복식 묘사는 사치와 호사로 연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꾸미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서술 태도가 옛보이나 생김새, 즉 ‘타고난’ 미모는 인물을 평가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에서 대표적인 미모로 거론되는 인물은 소부의 며느리 석씨·형씨이며, 이들을 압도하는 미모는 딸 월영이고, 이보다는 소현성의

44) “……스위 부인이 다 청춘 쇼년으로 식모 지혜 일세에 특출하니라 단장의 샐려한 거슬 구티 아니하야 혼 가지 복식으로 홍상을 쓰이고 취삼을 찢티며 패옥을 드리오고 봉관을 정히 하야 깃석의 버러시니……”, 권4, 55면.

45) “……소윤석 삼인이 옥슈의 잠은 바 칠보선을 기우리고 둥인 총등을 향하야 홍순옥 치를 움죽여 말숨을 일우매 향기로온 바람이 니러 나고 빅티만광이 뉴출하니 본디 의상품과 지분을 엄히 너기는 절식이 이에 들매 탈거하야 비컨대……”, 권4, 56면.

외모가 더 빛이 나며 오십이 넘은 양부인의 미모는 감히 넘보기 어려운 분위기를 지닌 것으로 묘사된다. 이들이 등장할 때는 늘 그 아름다운 얼굴 생김과 전체적인 분위기에 대해 장황하게 묘사한다.

그렇다면 추모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지녔는가가 궁금해진다. <소현성록> 별전에는 추모이면서 확고한 지위를 획득한 임소저라는 인물이 등장한다. 자식 대 이야기에서 덕(德)을 지닌 여성⁴⁶⁾이 추모로 설정되면서 이 작품의 서사는 다시 새로운 원동력을 충전하게 된다. 그러나 추모가 곧 제거되어야 하는 부정적 자질로 그려지지 않는다. 소위 덕이 있다면 말이다. 작품 후반부에 이르면 임소저가 실은 전생에서 뛰어난 미모를 지닌 봉래궁 선녀⁴⁷⁾였다는 설정으로 그녀의 추모라는 결핍에 균형을 잡아 주고, 무엇보다 운명의 현실적 기대와 의지⁴⁸⁾를 배경으로 임씨는 결국 추모인 채로 작품의 서사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인물로 살아남는다. 그런데 이는 고전소설에서는 드문 설정이다. 추모가 등장하는 대표적 작품인 <박씨전>에서 박씨는 허물을 벗고 미인이 되었고, <유씨삼대록>의 순씨는 시집의 문화적 세례를 받아 어느 정도 세련되어진다. 반면 악인인 <장화홍련전>의 계모 허씨는 추모인 채로 남아 결국 제거되는 운명에 처한다. 이에 비하면 <소현성록>의 선택은 임씨를 변화시키지 않고 그녀가 추모인 채로 받아들여지도록 설정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임씨가 추모인 채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색/덕 담론⁴⁹⁾에서 이 작품이 덕의 실천 쪽을

46) 소현성은 며느리 임소저의 덕을 보고 그녀를 긍정적으로 수용한다.

47) 권11, 73면.

48) 운명은 임씨를 부인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늘이 자신과 같은 인물을 내고서 이렇게 못 생긴 부인만으로 만족하라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반드시 미인을 얻어 평생 환을 풀 의지를 강고히 한다. 권9, 103-104면.

49) 조혜란, 「여성, 전쟁, 기억 그리고 <박씨전>」,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9, 한국고전여성문화회, 2004, pp.293-97.

지향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분명한 것은 <소현성록>의 경우는 추모가 제거의 대상이나 회화화의 대상으로 묘사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이다.

이 작품에서 회화화의 대상이 되는 것은 추모가 아니라 지적 능력의 부족이다. 권9에서 손생은 체면을 돌볼 여지없이 한껏 회화화되는데 그 결정적인 이유는 그가 시를 짓지 못해서, 즉 지적인 능력이 부족해서이다. 반면 혼인한 지 3년 동안이나 임씨를 찾지 않았던 운명이 임씨를 부인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그가 임씨가 지은 시들을 보고 그 필체와 문재(文才)에 탄복했기 때문이다. ‘자신의 문장이 비록 뛰어나나 그녀의 재주에는 능히 미치지 못할 바’라는 것을 알게 된 그는 그녀를 소약란에 비기며 아내로 받아들인다⁵⁰⁾. 운명이 임씨를 받아들여지게 된 계기는 임씨의 부덕(婦德)이 아니라 그녀의 시적 재능 때문이었다. 시적 재능이 없는 인물은 한없는 창피를 당하고 웃음거리가 되는 반면 시적 재능이 뛰어난 인물은 그 재능을 가지고 자신의 결핍 요소를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 설정되었다. 이 작품에서 지적 능력은 다른 고소설에서는 극복 가능하지 않았던 여성 인물의 추모까지도 뛰어넘을 수 있는 자질로 작동한다. <소현성록>의 여성 인물들은 대개 미모만이 아니라 재주까지 겸비하고 있다. 여성에게 있어 재주란 여공(女工)을 가리킬 것 같은데 막상 작품을 보면 여공 자체가 강조되는 맥락은 거의 없다. 여공과 관련된 사건으로는 소현성이 둘째 부인을 얻으려고 할 때 화씨가 소현성의 혼례복을 비느질하는 장면⁵¹⁾ 정도가 있다. 그런데 이 장면 역시 여공 자체가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 투기의 제어 여부가 관건이다. 작품의 보여주기 서술을 통해 볼 때, <소현성록>에 등장하는 여성 인물들이 갖춰야 하는 능력은 여공보다는 지적 능력이었다. 이는 묘사에서도, 대화에서도, 삽입문에서도

50) 권9, 102면.

51) 권1, 42-45면.

확인된다. 남성 인물의 경우는 더 말할 나위가 없는 일이다.

3.3. 상층 교양의 표방

<소현성록>의 삽입문이나 대화 장면에서도 한자 어휘가 많고 한문투 문장이 보일 뿐 아니라 중세 동양의 보편적 지식이라 할 수 있는 수많은 용사(用事)와 전고(典故)에 해당하는 내용을 인용하고 있다. 한글로 쓰여 있지만 한자 어휘의 음독인 관계로 그 어구에 관련한 정확한 지식이 있어야만 제대로 된 이해가 가능하다. 즉 <소현성록>의 작가는 이 작품의 독자로 기본적인 한문 교양을 갖춘 이들을 상정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소현성록>의 서술문에 비해 대화 부분은 일상적 구어체로 전개되며 간혹 ‘속어, 비어, 욕설’ 같은 단어가 쓰이기는 한다⁵²⁾. 그러나 <소현성록>의 대화에서 속어, 비어, 은어가 많이 쓰이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그런 단어는 간혹 가다 해당 장면의 정황을 실감나게 하기 위해 구사되는 것으로, 대개는 교양 있는 어휘를 사용하며 문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단정하고 전아하다. 앞에서 거론했던 것처럼 형씨는 자신의 지적 배경으로 여성 교육을 위한 규훈서 중심의 독서 목록이 아니라 동양 중세의 보편적 지식이었던 역사서와 경전을 들어 말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조선시대의 문집 소개 여성 관련 기록들을 검토해 보면 조선시대 여성들의 독서 목록에도 내훈, 계녀서 류만이 아니라 『소학』, 『십구사략』, 『논어』, 『강목』, 『좌씨춘추전』, 『상서』 등의 책명이 등장한다⁵³⁾. 이 같은 정황으로 볼 때, <소현성록>에 등장하는 여성 인물들의 한문 교양은 실제로도 개연성 있는 설정일 수 있겠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한문 교양이 수용되는 것은 <소현

52) 정창권(1998), p.307.

53) 조혜란, 「조선 시대 여성 독서의 지형도」, 『한국문화연구』 8,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2006, pp.33-38.

성록>만의 고유한 특징은 아니어서 다른 국문장편소설 작품들에서도 확인된다⁵⁴⁾.

<소현성록>의 서술이 지향하는 교양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는 이 작품의 서술자가 무엇을 어느 수준까지 언급하고 있는지와 관련 있다. 대화 장면 중에는 10면이나 15면에 걸쳐 그 장면 전체를 다 서술하려는 시도를 하는 경우들이 있다. 이렇게 풍부하게 연이은 장면 전부를 기술하려는 태도를 지닌 서술자가 어떤 부분에서는 매우 소략한 서술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 추모를 묘사하는 태도가 그 대표적인 한 예가 될 것이다. 이 작품의 추모 묘사는 전반적이고 추상적인 언급으로, 서술자는 임씨의 이목구비 하나하나를 결코 끝까지 다 그려내지는 않는다. <박씨전>의 박씨 묘사나 <장화홍련전>의 허씨 묘사와 비교해 보면 <소현성록>의 서술자가 추모 묘사에 대해 얼마나 삼가는가를 알 수 있다. 마치 미모도 아닌데 사람의 생김새를 가지고 운운하는 것은 차마 그렇게 하기 어렵다는 뜻이 말이다. 사건 서술의 경우도 이렇게 끝까지 서술해서 보여주지 않는 예들이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교영의 실절 사건이다. <소현성록>의 서술자가 다른 사건을 서사화해 내는 솜씨나 태도를 볼 때, 만약 서술자가 이 사건을 비중 있게 다루려고 했다면 얼마든지 부연이 가능했을 그런 사건이다. 그러나 작품에서 이 사건은 단지 “니한님 쳐 교영이 덕소의 머므니 꺾집의 뉴장이란 빅성잇 사름이 잇더니 상쳐호고 환거호야 어린 겨집을 구홀시 니한님 체 격장의 이셔 외로움을 듯고 서르 뜻이 마자 스통호여 사란디 삼년의……⁵⁵⁾”로 처리되어 있다. 삼년의 연애 혹은 실절

54) 국문장편소설에 다양한 한문 교양이 수용되는 데 대한 논의로는 서정민, 「<명행정의록>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2006, pp.60-136; 김문희, 「<현몽쌍룡기>의 서술 문체론적 연구」, 『고소설연구』 23, 한국고소설학회, 2007, pp.73-74.

55) 권1, 34면.

사건을 단 한 문장도 안 되는 분량으로 처리하고 만 것이다. 그런가 하면 소현성의 세 번째 부인 여씨의 욕망이나 심리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묘사하지 않는다. 그저 개용단을 먹고 석씨로 변한 후 ‘상서의 손을 잡고 머리를 무릎에 얹으며’ 한다는 말이 자신이 ‘설씨라는 외간 남자에게 정이 있고 그의 아이를 가졌다’고 한다거나 혹은 “방탕하고 더러운 행동을 심하게 하였다”라는 설명으로 제시될 뿐이다⁵⁶⁾. 화씨로 변해서는 외당에 나가서 있다가 소현성의 책망을 듣는 장면⁵⁷⁾은 한 면도 안 되게 서술하거나 ‘기괴한 행동을 무궁히 하였다⁵⁸⁾’ 정도로만 서술한다. 그녀의 악행은 지나치게 생략된 채로 설명적으로 제시되어 꺾진성과 설득력을 확보하지 못한다. 그런데 여씨가 석씨의 필적을 훔내 낸 후 몰래 양부인 처소에 둔다든가 혹은 양부인의 음식에 독을 타는 악행은 제법 자세하다. 이로 보건대 서술자는 성적 욕망이나 노골적으로 성애적인 장면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서술을 피한 듯하다. <소현성록>의 서술자는 추모에 대해서도, 성적 욕망⁵⁹⁾에 대해서도 일정 정도 이상은 더 나가지 않는 서술을 하고

56) “문득 일딘 향풍의 쾌옥 소리 니러나며 뒤호로서 일위 미인이 뇨” 덩” 이 나와 상서의 꺾티 와 안즈며 왓 첩이 죄 중커니와 상공의 박디 너모 심흐니 첩이 었디 혼티 아니리오 비록 설가의 정이 머뜨르고 복등의는 설시의 골육이나 낭군의 옥모화풍을 니즈리오 상셰 머리를 두로혀 보니 이 곳 석시라 아릅다운 즈티 율하의 더욱 귀신의 거우런들 었디 능히 분변흐리오 상셰 더를 보고 말을 드르매 크게 고이히 너겨 명모를 정히 햐야 낭군이 었디 첩을 띠물히 흐느뇨 바라건대 쇼첩의 상스흐는 정을 어엿비 너기라 드디여 방탕흐고 더러오미 극흔디라”, 권3, 16면.

57) 권3, 38면.

58) “상셰 외당의 잇는 날이면 너시 화시 되여 나가 기괴한 거조를 무궁히 흐니”, 권3, 39.

59) 이 밖에 명현공주나 광후 등도 자신의 욕망을 강하게 피력하는 인물들이다. 그런데 명현공주의 경우는 단지 성적 욕망만이 아니라 첫째 부인이라는 지위에서 비롯되는 승부욕 및 황실을 배경으로 한 권력 관계와 관련하여 형상화되는 측면이 있어 사건의 전개가 자세하게 전개되었다. 그런가 하면 광후의 경우는 궁에서 축출 당하게 되는 경위가 자세하게 사건화되는 데 비해 광후의 투기, 성적 욕망에 대한 언급은 간단하

있다. 차마 그 이상은 서술하지 않으려는 태도는 지나치지 않고자 하는 서술자의 교양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⁶⁰⁾.

이 작품이 교양을 추구한다는 것은 어휘나 사건의 선택만이 아니라 장면화하는 데서도 엿볼 수 있다. 앞에서 언급했던 안사돈들끼리의 인사 장면의 경우, 각자의 시선은 복잡하게 엇갈리고 그녀들의 욕망은 복잡하게 충돌하나 그 누구 하나 직설적으로 혹은 솔직하게 입 밖으로 내어 말하지 않는다. 자신들의 딸의 삶을 생각해 보면서 행간으로는 수많은 원망과 걱정과 비판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녀들은 결코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당위를 우아하게 수행한다. 그 장면이 그렇게 그려진 것은 서술자가 상층 여성들에게 요구되던 교양의 방식을 따라 서술했기 때문이다. 그 장면의 여성들은 자신들이 교양 있는 여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욕망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인물들이나 것이다. 그렇게 하면 교양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녀들은 우아한 눈짓과 몸짓, 그리고 사교적인 발화로 그 장면을 마무리한다. 서술자는 이 장면에서 그런 행간에 숨겨진 시선들을 포착하여 비판적으로 드러내는 대신 그 장

게 처리되었다.

60) 이 밖에 소월영이 시집가서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살아야 했던 세월에 관한 내용도 서사화하면 상당한 분량에 이를 것으로 보이나 작품에서는 이를 소월영과 형씨의 대화 장면에서 월영의 대사로 처리한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경우의 다른 사건은 상당한 분량에 걸쳐 서사화하고 있다. 그것은 현성의 딸 수빙소저가 김현의 둘째부인으로 시집가서 시어머니와 첫째 부인에게 고초를 당하다가 친정인 소부에 와서 살게 되기까지의 이야기이다. 월영 역시 1년 중 8개월 정도는 친정인 소부에 와서 지내는데 그 정당성의 근거는 바로 그녀가 시집가서 당했던 고초 때문인 것으로 그려진다. 월영과 수빙소저는 사건의 열개는 매우 비슷한데 월영의 경우는 한 단락 정도의 자기서사로 처리된 반면, 수빙소저는 매우 자세하게 서사화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이렇게 다른 선택을 한 이유는 아마도 소현성 대 이야기는 소현성에게 집중했던 반면 자손 대 이야기에는 아들만이 아니라 딸의 서사까지도 포함하여 구색을 갖추하고자 해서가 아닌가 짐작된다. <소현성록> 작가의 이 선택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고찰해 볼 필요가 있겠다.

면의 여성 인물들이 유교 이념이 표방하고 있는 상층 여성 교양을 내면화하고 있는 것처럼 서술한다. 즉 가식(假飾)이 아니라 우아(優雅)로 그리는 것이다. 이 장면에서 그 여성들이 보이는 태도는 그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처세적 교양에 가까운데, 서술자가 이 문제에 대해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 역시 이 같은 상층 여성의 교양에 동의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소현성록> 서술을 고찰해 보면, 이 작품의 서술자는 다양한 층위에서 교양을 추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소현성록>의 서술자는 보여주기 서술을 통해 어휘 차원에서, 인물 형상화 차원에서 그리고 문면에 잠복해 있는 주제 전달이나 서술자의 세계관 차원에서 당시 상층 사회에 속하기 위해 요구되었던 품위나 격을 갖추는 데 필요한 요건들을 보여주었다고 하겠다.

3.4. 개연성 있는 여성 인물의 형상화

이미 보여주기 방식의 서술을 통해 확인했듯 <소현성록>의 여성 인물들은 지적인 능력 면에서 뛰어나다. 형씨, 석씨, 소씨 등 그녀들에게 강조되는 것은 문제해결 능력이다. 그녀들이 올린 표문이나 편지글은 누군가의 지위나 목숨이 위협 받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을 돌려놓기에 충분했다. 이 작품에서 서술자는 이런 역할을 여성 인물이 담당하도록 설정해 두었다.

여성 인물이 강세를 보이는 고전소설 작품으로는 여성이 장군으로 등장하는 여성영웅소설들이 있고 여성영웅소설은 아니지만 뛰어난 여성 인물이 등장하는 <옥루몽>이나 <삼한습유> 같은 작품이 있다. 그러나 이 내용들은 문제 상황을 환상적으로 해결하는 작품들이다. 도술적인 설정이

아니더라도 조선시대 현실에서 여성은 결코 장군으로 활약하면서 공적 지위를 유지할 수 없었고, 황제를 깨닫게 한 벽성선의 공간은 실은 언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악기 연주에 의한 것이며, 전생의 현현인 향낭은 그야말로 초현실적 존재인 것이다. 기생의 딸인 춘향이 양반의 정실이 된다는 <춘향전>의 결말은 환상적 해결일 뿐만 아니라 독자가 양반 여성이었다면 그 양반 여성이 기생의 딸 춘향과 자신을 동일시하며 읽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에 비해 <소현성록>의 여성 인물들이 보여주는 활약은 조선시대 상황에서도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내용들이다. 소부가의 여성 인물들은 박씨처럼 하룻밤 만에 조복을 완성하거나 강남홍처럼 검술이 뛰어난 여장군으로 출정하지 않는다. 대신 그녀들은 글을 썼다.

조선시대 자료 중에는 여성들이 남긴 상언(上言)이 있다. 당대 여성들은 가문의 후계를 세우는 입후 문제, 재산 및 신원 문제, 그리고 사회로 인한 몰락 위기에 처한 가문을 구하기 위해 기꺼이 상언이라는 공식적인 글쓰기를 시도하였다. 그녀들은 주로 시집식구의 원역한 일에 대해 상언이나 격쟁(擊箏)을 했고, 친정부모를 위해 청원하는 경우도 있었다⁶¹⁾고 한다. 이런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형씨가 표문을 올려 남편 운성의 목숨을 구하는 문제 해결 능력을 보이는 것은 조선 현실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개연성이 있는 설정이었다. 즉 형씨, 석씨, 월영 등은 현실에서의 불가능성을 확인시키는 환상적 대안이 아닌 당대 현실에서도 실현 가능성 높은 가능태로서의 행위 주체들인 것이다. 소부의 여성들 같은 상층 귀족 여성들에게 중요했던 자질은 무엇이였을까를 질문하게 되는 대목이다. 실제로 <소현성록>에 등장하는 소씨 가문처럼 번창한 집안 여성들은 자신들이 직접 노동할 필요가 없었다. 작품에 그려지는 소부 여성들의 일상

61) 서경희, 「김씨 부인 상언을 통해 본 여성의 정치성과 글쓰기」,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2,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6, pp.40-51.

역시 가사노동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물론 그녀들도 바느질도 할 줄 알고 제사 음식도 직접 마련했겠으나 그것은 그녀들이 부덕을 갖춘 여성이라는 표지가 되는 행위들에 가깝다. 살림이 넉넉한 양반가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공과 부덕을 강조했으나 일상생활의 가사노동은 종들의 몫이었다⁶²⁾. 화씨도, 월영도 바느질하나 그것이 그녀들의 일상을 구성하는 주된 업무로 그려지지 않는다.

소부가의 두 세대를 대표하는 며느리인 석씨와 형씨가 인정을 받은 것은 여공을 잘 해서가 아니다. 일 년의 삼분의 이를 친정에서 지내는 월영 역시 규방에서 침선하는 인물로 그려지지 않는다. 작품에서 주로 묘사하는 것은 그녀들의 혼정신성(昏定晨省)과 잔치자리에서의 빛나는 외모, 남편과의 관계에서의 현숙함 그리고 언변을 포함한 지적인 능력이다. 그녀들은 자신들의 지적인 훈련을 바탕으로 가문이 위기에 처했을 때에는 기꺼이 공적인 발화를 한다. 형씨와 석씨는 공적인 영역에서의 글쓰기인 표문을 올림으로써 황제와 황후를 설득해 내고 인정받는다. 17세기 조선에도 공적인 명예에 대한 욕망을 지녔던 양반 여성에 대한 기록이 있다. 지적 능력이 뛰어나 아버지 김창협을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김운(金雲: 1679-1700)⁶³⁾이 바로 그이다. 비록 기록으로 남지는 않았

62) 같은 양반가 여성이라도 살림살이의 형편에 따라 노동의 강도는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같은 여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어떤 여성에게는 그것이 부덕의 차원을 의미했다면 또 어떤 여성에게는 생계를 책임지는 강도 높은 노동의 형태를 띠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해남 윤부의 종부였던 팽주 이씨는 가사 노동은 종들의 몫이라며 자신은 힘들어서 그런 노동은 하지 못 하겠다고 한 기록을 남기기도 하였다. 양반 여성들의 노동에 대해서는 김경미, 「선비의 아내, 그녀들의 숨은 노동」, 『여/성이론』 11, 여이연, 2004 ; 해남 윤부가 종부의 기록에 대해서는 조혜란, 「<규한록>, 어느 억울한 종부의 자기주장」, 『여/성이론』 16, 여이연, 2007, p.163.

63) 김운은 아버지로부터 『논어』, 『상서』등을 배웠고, 자신이 남자로 태어났다면 깊은 산 속에 집을 짓고 수백 수만 권의 책을 쌓아두고 그 가운데서 조용히 늙어가고 싶다고 하였다. 그런가 하면 자신은 여자라 세상에 아무런 공덕도 드러낼 수 없으니 차라리

지만 공적 명예에 대한 동경을 가졌던 여성이 김운 하나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형씨나 석씨 등은 당대 이데올로기가 이상형으로 내세운 여성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않고 공적인 글쓰기를 통해 집안 외부로부터의 인정을 받은 인물들이다. 그녀들은 <사씨남정기>의 사씨처럼 수동적인 자세로 사태에 임하는 대신 친정으로 가거나 혹은 표문을 올리는 등 필요하다면 먼저 결단하고 행동에 옮겼다. 그녀들에게서는 능동성, 주체성, 자존감, 자신감 등이 감지된다. 자신이 속한 가문에 스스로 무엇인가 기여할 의지, 존재에 대한 인정 욕구를 지닌 조선 양반 여성에게, 현실에서 있을 법한 개연성을 지닌 <소현성록>에 등장하는 여성 인물들은 동일시하기에 매력적인 인물들이었을 것이다. 공적 명예에 대한 좌절된 꿈, 잘 훈련된 지적인 능력, 집안 배경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된 정치적 감각 등 조선 시대 양반 여성이 지녔을 법한 요소들과 <소현성록>의 여성 인물들은 적당한 친연성과 거리를 만들어 내면서 조선조 양반 여성들에게 이상적인 역할 모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본고는 서술론적인 접근 방법에 의거하여 장편 가문소설의 작품 세계와 서술 지향을 살펴보는 작업의 일환으로 시도된 것이다. 그 첫 작업으로 <소현성록>을 대상으로 하여 작품 중 묘사, 대화, 삽입문 등 보여주기 서술 방식에 의해 서술된 부분을 대상으로 그 양상과 의미를 고찰하였다.

일찍 죽어 아버지의 글을 얻어 묘석에 새기는 것만 못하다고 하였다고 한다. 김창협이 문장으로 유명하니 자기가 먼저 죽어 아버지의 묘지명을 얻으면 아버지의 글이 전해지면서 자신의 이름도 같이 전해질 것을 염두에 둔 말이다. <亡女吳氏婦墓誌銘>, 金昌協, 『農巖集』 권27, 『韓國文集叢刊』 162, 255-256면.

보여주기 방식이란 마치 눈으로 보는 듯이 표현하려고 하든가 혹은 재현해서 보여주는 서술 방식으로, 시각적 접근을 중심으로 하는 묘사, 작품에 상당한 비중으로 확대되어 서술되는 대화 장면, 그리고 상소나 편지글 혹은 제문, 시 등을 완벽하게 재현하여 제시하는 삽입문 등이 보여주기 방식에 의한 서술에 해당한다. 이 보여주기 방식의 서술은 서술되는 내용의 구체성, 현장성을 살려주는 서술로, 독자들이 읽으면서 그 내용을 함께 경험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제공한다. 그러므로 보여주기 방식의 서술은 서술자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서 독자들의 능동성, 능동적 독서 과정을 유도할 수 있다. <소현성록>의 보여주기 서술은 대화가 큰 비중을 차지하며 표문, 편지글 등의 삽입으로 인해 그들의 논리성을 기층해 보는 지적인 재미가 있다. <소현성록>의 경우, 긴 대화 장면이나 상소문 등의 재현은 서사의 흐름을 방해하여 독자들의 독서 흥미를 반감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독자들이 등장인물들의 일상을 들여다보는 것 같은 효과를 유발하여 독서에 몰입할 수 있는 장치로 작동하였다⁶⁴⁾. 또 <소현성록>은 행위, 사건 중심의 서사가 아니라 묘사, 대화, 삽입문 등의 보여주기 서술에 치중한 결과, 여성 인물들이 자신들의 외모, 지적 능력 혹은 주체성 등의 정채를 획득할 수 있었다. 행위 위주의 서사였다면 여성 인물들이 이처럼 많은 부분을 보여줄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64) 박영희는 여성들만의 장황한 대화가 이야기를 느슨하게 만드는 역할을 해서 긴장감을 떨어뜨린다고 하였다. 박영희(1994), pp.148-149. 물론 길게 전개되는 대화는 서사 전개 측면에서 보면 서사 전개의 속도를 중지시키는 부정적인 역할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17세기에 유통되었던 소설들이 서사가 강한 반면 디테일의 축조에 있어서는 그다지 성취를 보이지 않았던 작품들이었음을 고려해 볼 때, <소현성록>의 보여주기 서술은 그 당시로서는 오히려 새로운 기법이었으며 미시적이며 일상적인 디테일을 구축하는 데 기여한 측면이 있다.

<소현성록>에 나타난 보여주기 서술의 양상을 살핀 결과, 이 작품의 작가는 자신도 일정 수준 이상의 한문 교양을 구사하는데, 작품에서 구사한 전거 정도는 즐기면서 이해할 수 있는 비슷한 지적 배경을 가진 이들을 독자로 상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서술자 역시 교양이 아니라고 여겨지는 대목은 차마 끝까지 표현하지는 않는 서술 태도를 보여준다. 이는 추모 묘사 방식이나 사건화를 결정하는 선택 등을 살핌으로써 추정 가능하였다. 또한 여성 인물들이 매력적으로 형상화되는 요소 가운데 여성들의 지적 능력이 중요한 자질로 간주되었다.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 문제 해결력을 보여준 형씨나 석씨, 월영 같은 여성 인물들은 양반 여성들이 역할 모델로 동일시하며 읽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 기저에는 양반 여성들의 공적 명예욕이나 인정 욕구 등이 함께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 작품은 유교적인 이념에 따른 여성 교육의 내용을 등장인물들에게 구현하면서 등장인물들이 그 가치를 내면화하고 있는 것으로 형상화한다. 작품의 서술이 상층 여성들 사회에서 통용되는 교양의 내용에 대해 비판적 시선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는 것은 서술자가 그러한 교양에 동의한다는 의미로 해석 가능하다. 그런 까닭에 이 작품에서는 유교적 이념에 따른 여성 교양이 우아하게 서사화되고 있다. <소현성록>의 보여주기 서술을 고찰한 결과, 이 작품이 지닌 단정함은 단지 이 작품이 유교적 도덕을 추수해서가 아니라 서술자의 지향이 상층 교양의 구성을 향해 있었던 데서 비롯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어휘의 수준에서부터 서술자의 지향에 이르기까지 <소현성록>은 유교 이념에 토대를 둔 상층 사회의 교양미를 추구한 작품이라 할 수 있겠다.

참고문헌

<소현성록>, 15권 15책 이화여자대학교 소장본.

김창협, 『농암집』 권27, 『한국문집총간』 162.

김경미, 「선비의 아내, 그녀들의 숨은 노동」, 『여/성이론』 11, 여이연, 2004 pp.188-207.

김경미, 「주자가례의 정착과 <소현성록>에 나타난 혼례의 양상」, 『한국고전연구』 13, 2006, pp.5-28.

김문희, 「<현몽쌍룡기>의 서술 문체론적 연구」, 『고소설연구』 23, 한국고소설학회, 2007, pp.69-96.

김정숙, 「소설의 언술체계로서 서사와 묘사의 상호작용」, 『불어불문학 연구』 33, 1996, pp.625-645.

김홍균, 「복수주인공 고전장편소설의 창작방법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 논문, 1990, pp.1-176.

노정은, 「<소현성록>의 인물 형상화 변이 양상」, 고려대 석사학위 논문, 2004, pp.1-101.

문용식, 「<소현성록>의 인물형상과 갈등의 의미」, 『한국학논집』 31, 한양대 한국학연구소, 1997, pp.99-118.

박영희, 「<소현성록> 연작 연구」, 이화여대 박사논문, 1994, pp.1-258.

박영희, 「<소현성록>에 나타난 공주훈의 사회적 의미」, 『한국고전연구』 12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5, pp.5-35.

박일용, 「소현성록의 서술시각과 작품에 투영된 이념적 편견」, 『한국고전연구』 14, 2006, pp.5-39.

백순철, 「<소현성록>의 여성들」, 『여성문학연구』, 한국여성문학학회, 1999, pp.127-154.

서경희, 「<소현성록>의 ‘석과’ 연구」, 『한국고전연구』 12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5, pp.69-100.

서경희, 「김씨 부인 상언을 통해 본 여성의 정치성과 글쓰기」,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2,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6, pp.39-75.

서정민, 「<명행정의록>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2006, pp.1-242.

- 송성욱, 『한국 대하소설의 미학』, 월인, 2002, pp.1-384.
- 송성욱, 『조선시대 대하소설의 서사문법과 창작의식』, 태학사, 2003, pp.1-368.
- 송성욱, 「17세기 소설사의 한 국면」, 『한국고전연구』 8, 한국고전연구학회, 2002, pp.241-270.
- 양민정, 「〈소현성록〉에 나타난 여가장의 역할과 사회적 의미」, 『외국문학연구』 12, 한국외대 외국문학연구소, 2002, pp.101-126.
- 웨이 부스, 최상규 역, 『소설의 수사학』, 예림기획, 1999, pp.1-623.
- 이주영, 「〈소현성록〉 인물 형상의 변호와 의미-규장각 소장 21권을 중심으로」, 『국어교육』 98,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998, pp.345-367.
- 임치균, 「〈소현성록〉에 나타난 혼인의 양상과 의미」, 『한국고전연구』 13, 2006, pp.29-48.
- 임치균, 『조선조 대장편소설 연구』, 태학사, 1996, pp.1-352.
- 장시광, 「〈소씨삼대록〉의 여성반동인물연구」, 『온지논총』 9, 2003, pp.107-148.
- 장시광, 「〈소현성록〉 여성반동인물의 행위 양상과 그 의미」, 『여성문학연구』 11, 2004, pp.347-375.
- 정길수, 『한국고전장편소설의 형성 과정』, 돌베개, 2005, pp.1-379.
- 정병설, 「장편대하소설과 가족사 서술의 연관 및 그 의미」, 『고전문학연구』 12집, 1997, pp.221-248.
- 정병설, 「조선후기 여성소설과 남성소설의 비교 연구」, 『국어교육』 107, 한국국어교육연구회, 2002, pp.401-427.
- 정선희, 「〈소현성록〉 연작의 남성 인물 고찰」, 『한국고전연구』 12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5, pp.37-68.
- 정선희, 「〈소현성록〉에 드러나는 남편들의 폭력성과 서술 시각」,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4,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회, 2007, pp.453-487.
- 정창권, 「〈소현성록〉의 여성주의적 성격과 그 의미」, 『고소설연구』 4, 한국고소설학회, 1998, pp.293-327.
- 정창권, 「조선후기 장편 여성소설 연구-〈완월회맹연〉을 중심으로」,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1999, pp.1-175.
- 정혜경, 『한국현대소설의 서사와 서술』, 월인, 2005, pp.1-228.
- 조광국, 「소현성록의 별열 성향에 관한 고찰」, 『온지논총』 7집, 2001, pp.87-113.
- 조혜란, 「〈규한록〉, 어느 억울한 중부의 자기주장」, 『여/성이론』 16, 여이연, 2007,

pp.152-167.

조혜란, 「<소현성록> 연작의 서술과 서사적 지향에 대한 연구」, 『한국고전연구』 13, 2006, pp.91-129.

조혜란, 「여성, 전쟁, 기억 그리고 <박씨전>」,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9,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4, pp.279-310.

조혜란, 「조선 시대 여성 독서의 지형도」, 『한국문화연구』 8,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2006, pp.29-59.

지연숙, 「소현성록」의 공간 구성과 역사 인식」, 『한국고전연구』 13, 2006, pp.49-89.

ABSTRACT

The Effect of Showing Methodology in *Sohyunseonglok*

Cho, Hae-Ran

This paper tries to examine the value and the tendency of three-generation stories of the Chosun Dynasty based on theory of narration. As a first step, I chose *Sohyunseonglok* and attempted to analyse its showing methodology such as description, conversation, and the insertion of letters or public statements which are called Phoumun(表文). Showing methodology is used to vivify and specify scenes of this work and leads readers to participate in experiencing and judging the story. In this sense, narrative that is written in showing methodology induces more active reading process from readers than narrative that is written in the writer's unilateral perspective does.

Another notable thing of showing methodology in *Sohyunseonglok* is that lots of knowledge about Confucian scripture and Chinese history are found. This indicates the fact that the writer assumed readers to have a similar intellectual background with him who can fully understand and enjoy that kind of knowledge. Moreover, the narrator is found to never fully describe the scene if it is considered as shallow or uneducated. The way ugly women are described or the way of developing the story tells this tendency.

Conclusively, I can find that the story of this work does not merely admire Confucian principles, but is based on the narrator's intention to form the decent culture of the upper class. From the choice of vocabularies to the intention of the narrator, *Sohyunseonglok* pursues Confucian decency.

Key Words *Sohyunseonglok*, showing, theory of narration, narratology, description, conversation, insertion, Confucian decency, Confucian culture, writing, role model, appearance, woman character

논문투고일 : 2008. 3. 30
심사완료일 : 2008. 4. 20
게재확정일 : 2008. 5. 4